

明義錄
諺解
上





五

五





의록차조

보국송루태우녕충추부스치스봉

김치인대광보국송루태우녕돈녕부스

신김양혁대광보국송루태우의정부좌의정

겸녕경연소감추추판스신김상철대광보

국송루태우녕충추부스신니은대광보국송

루태우의정부우의정겸녕경연소감추추

판스신녕존겸등은업디여배서리어롬되는

점은

이

다

이

이

드며 일흔 가흔, 천근 심은

공조 말슴의 비술의 두실은 근심하, 열날

우지아닐배언 무참내닐으지아닐배업느니

성인이 의리아롱이삼허닉으시고 일뎡녀하

이상이머르시고 그말숨이 깃고정미하야

동패곤절하, 샤 및부와정협이이사나가하보

암즉지아나리잇가으회라우리 단해예성

하심조질을가지서고형태의 정통을별라우

에게샤 덕을출공의기루심이거의이십년

이시니 종샤의의탁이본더정하, 시고신민

의이더하음의곤절하이라이럼으로우리

영종성죄대질 구심되어오 시년령으로버만귀

만과지정소를 의등훈을진념훈오서퇴일을

보샤 디형 훈신갈숨아정훈라훈식너외권

근 당의근노치못 훈시매근노훈실라훈시매순이

섭정훈심이진실노하늘파사름의뜻의합훈

논지라써로버훈즉맛당훈고일훈으로버훈

즉바로거늘오직져요피롭고훈훈종류귀역

이되며례동이되며효경이되야 나라병환

을가히귀이리라훈며 대척 훈정을년을가

히막으리라훈야 구만훈 훈점의로훈의공년

음 이 길히 이의 굿음을 밋고 나라 권을 오래도

적함음을 비라 밧과 안호로 선동 홍언을 밧치내
어요 등함 단말

라 함, 논자 최와 슈미로 화응함, 논정절이 호변

연주의 진한이 더령
각 탄로 함, 고두 번 소장

상운의 상소와 안면 외
상소를 낚은 말이라 의 틸발 함, 고미 촌내 기

만호 집슈작과 소스편지 왕복의 난만 함, 야문

득신 임년 모든 역적으로 더 브러 창지 호가 지

니 이 해 나라 일을 싱각 함, 매 능연 호지라 만일

우리 성조의 지극 함, 신주의와 지극 함, 신복

으심과 우리 연하의 성 함, 신덕과 큰도량이

아니오시면나라히엇지오닐이이시리잇가
신등이업디.계등디하일거를보오니을미이
월초오일노부터병선이월이십팔일의니르
히터욱듯지못흐온바를듯좁고터욱아지못
하던바를아와말마다쉴늘나고쉴쉴차다모
음이초온지라오회라우리하던해어렵고워
터함을지내오심이이에극흐오시되신등이
막연이아지못흐입고틈연히날을지내와일
죽흐번목욕흐던의를낫토아잇주화란의근
원을막지못흐오니신등의우이흐고히안흐

음이 일만 번 죽소와도 남은 죄잇소 온지라 힘
남은 바논 오직 흘낏공 죄라 나라 희미음이
고주하야 외로운 충성을 역적의 귀염이 치성
할 즘음의 세우고 성궁을 나라 형세 위급
날의 도와 밀물 허리 도흐는 정성 광개히 보
호호공이 진실노 가히 집을 피오는 호남 기
하늘을 밋치는 왼손이라 날을 거시오 동신
선의 호상 쇠배위티호기들을 두루허고
큰 계책을 도와 일위역적의 세로하야 곰발의
지못하고 나라운수로 평안호디도라 오게

호오니이전후의흥은무리반드시호두신하
의게감심화져호약제거호고장살호략호는
게피날노깍고날노급호야무참내극호역적
파큰죄악의스스로싸쳐도망치못호배란무
릇샤직을위티케호재역이되논고로샤
직을부드논재충이되며보호를맛든재공이
되논고로보호호논이를해호논재적이되
니대개사형정호오신천우로부터등극호
오신후의니근히단세충충히나고정절이다
드러나름이이과를제알호기에이대론사
름

고^이해^은단^말은^말이^라치^니러^나사^오나^옴이^고운^부

를^원슈^로보^기의^니르^고죄^공금^을교^통하^기

의^비로^서화^한이^나라^하업^치기^의거^의하^오

니^후겸^과닌^한의^간상^을이^의뱃^근죽^고우^를

호^위호^공이^더욱^크읍^고흥^년과^상간^의정^상

을^이의^의승^복호^족일^에몬^쳐호^막^과년^과말^이라^리충^을

성^이이^더욱^드러^나오^니이^진실^노충^역의^크게

나^호호^한백^오의^리의^크게^판계^호배^라이^제다

형^하던^되심^히북^으샤^국인^이호^가저^로쳐^부

을^노배^더고^단셔^의시^렸소^오나^이목^을누

고심장을 근손재뉘어 무리의 난역이 되든 줄
을 아지 못하리 오오적 그와 굴이 심암하 고흥
외음비하야 비저 번근원과 비포 흥뉘낙 이비
록 조정 제신도 신평후 쯔셔히 아지 못하 음이
잇습 거든 하 물며 소원 호사 롬이 리 잇가 또 이
번모든 역적이 전혀 척턴 귀근과 쉼족 거실의
나고 부치여 주장 흥 할 말 지 어 해 하느저 또
호만하 이 청요의 출입 하며 언론을 상하 하느
무리라 적시 고물 드림이 이 미너 르니 소거며
의 호 호 이 뵈디 시 만 흥지 라 이 제 만 일 광 명 호

의리론나타내고흥샤흔정상을새쳐일월이
 들니며뢰령이치드시아니호오면진실노저
 권대시일이첨점얼고문견이후그르와징도
 의간의리점점어둡고번복흔게피다시밍동
 향리나이세이찬집_{단명의특}말이_특호라호신_명
 은대개베_은군강을세우고인심을바로게_은
 며역과순을볼치고공과죄를퍼그명분을엄
 히호고그제방은준히호야세양의신하되자
 로이여음효연히강상을가히능모치못호고
 왕법을가히간범치못호며죄악을빠흔샤

는 비록 강하나 반드 시 화를 남고 충성을 품은
자는 비록 위덕하나 반드 시 복이 이시며 죄를
치기의 완홀흔자는 스스로 역적 두호하느니
도라가고 또 공을 돕피기의 정성된자는 나라
홀해함이 되느니 줄을 아라다 배아의 지낸일의
통부하며 위위하고 이압홀 징계하며 감화하
야 귀을의 속살하 광복의 발성함이 힘귀히케
하 선배나의 리의 극진함이 오어 질미지극함
이라 신등이 명령을 받츠와 공경하고 두려쥬
야로 편집하야 몬져 존현각일귀로 배초권의

을녀그테면을놓히고버거정원일거로베들
 과날을태레흐야그스실을올니고그글을싸
 버그처음과나종을히비히흐고금오문안들
 너허베국옥정절을주셔히흐고상소와게
 스를간간허을너베공논을외과미단아래각
 각다논단을흐야벧스판의포평흐논의로외
 방흐니편집흐은규모논일병천의쇼감대로
 흙입고법례논다우희품정흐야령을베픈지
 녀돌만의바로소모스오니클이세편이라선
 등이비슈계슈흐고봉흐야드리니이라

비답_하야_고골_은샤_던차_조를_보고_경등의_뜻을
 다_아랏_는나_오회_라파_인의_오늘_씩지_너름_은
 선_대왕_연디_곳조_은혜_를남_스옴_이라_일
 흥_이비_록조_손이_나슬_은부_지라_하시_던하
 표_를미_양흥_번싱_각하_매눈_물이_이셔_놋차_답
 피_느니_우리_선왕_의지_극하_시던_조인_는경
 등_이흥_가지_로아_는배_라우_리선_왕이_성신
 흥_신조_품으로_권근_은이_라흥_은당_의나_디
_근노_치못_하
_사탄_말너_쿠흥_신년_령을_누리_시너_저일_종불
_동이_려을_죄에_오고_리

말이 더러이 판 과 저 호 는 저 라 비 로 소 는 배 득 실 을

근 심 호 는 모 음 의 근 심 을 근 심 은 모 음 의 근 심 을

라 으로 나 는 총 너 의 근 의 을 원 슈 로 보 며

저 위 로 위 동 평 박 호 는 디 경 의 니 근 되 과

인 의 능 히 우 러 려 선 왕 의 알 외 지 못 호 음 은

버 경 섭 의 방 해 로 음 이 게

실 가 저 허 함 이 은 선 왕 이 밋 처 구 버 간 정 을

슬 피 지 못 호 심 도 버 경 섭 중 의 게 심 을 알 미

악 음 이 오 흥 도 의 니 외 로 선 왕 호 도 보 호 음

정 섭 호 시 는 즈 음 을 승 간 함 이 라 모 연 호 나 과

인의고곤고함을덕덕하던형상은이피니하
일귀의주세히실녀시니참아다시붓을적시
지말고저하나일이궁싱의금초이고권세척
완의등훈지라대신이시러곰아지못하며공
경이시러곰아지못하며수셔인이또훈시러
곰아지못하되그새를당하야오직훈났신하
홍국영이드러는눈물을먹음으며나가는피
를셀여밍취하야이도적으로더부러훈가지
로사지말고저하야나의몸을보호하교간사
훈씨밍등함을이리것그며오직신하등민시

한마음을티오며정성을다함야죽기로망세
함야다름이업스며오직신하셔명선은책소
로규훈함야위티함을두로허평안케함나이
는다복세의강상을심으며현하의의리를복
취가히버성인을기드려도의혹지아닐지라
경등이난역의근원을새치물싱각함매클노
버복지물청함니군부를놉피고난적을징으로
함노도리가히고잡다함리로다오회라큰옥
소를게요서치함매사름의모음이진정치못
함야시며거실의형홀의나아가매국세망애

훈지라 저게 의의와 희망의인을 저게는 제한

의희서 의을 것 거 씨로 그 신하 관중이 미양게

보탕이 새잡은 재네 덕호로 그물친거 술 맛당이

서로 희망하여 귀게 아닐지니 경등이 싯한거

귀의이 미버힘이로 모음을 부리오며 이척의

이의일움으로 텀트를 노치말지어 다히라우

로와 상설이 설은 위엄이라 진실노 님군의

조화어나와 제방과의 리는 진실노 신주의 상

분이니 더욱 모음을 갖게 하여 우리방가를 길

게함을 법이 평등의게 바라노라

...

...

...

...

...

...

...

...

...

...

진명의록전문

대광보국승록태우의정부좌의정경검녕소경
연소감추츠후관소신김상철등은성황성공계
유계슈상언하니니그옥이배난역을차고
죄악을징점함은부일어배스런슈를형하
배오스신을괴곡함며말을찬집함은간척이
배국시를나라를의바로게함배라난적의일
노죇차저허함을알고순상이힘납어배더욱
복함이로다태로나라의홍역이망동함의만
히보성신의슈하실즈음의잇는지라안노

노보호호노 경요 조예 인종 노보 이동 궁의

노의노을 의노을 가탁호야 나라 히흥 호도

모를 비저 내고 구회노 위핍호노 선 대왕야

데척 봉호시고 리 호손씨 부 휘 씨 방수히

호야 하늘의 맛노 화들길너 늘위 나라 처음 의

소이 룬트 고통을 여어 제소 소를 일우고 저 호

다가 다종에 기강을 간범호고 눈 상을 어즐어

여스 소로 우호로 범호노 디나르 도 다 저 착년

디령호라 신명은 선대왕 권근호오 신 년

령씨의잇소 다일인의원량 일 인은 동 궁 호 년

호심을 깃거호샤 조곤의 불근곤룡포는 면복석이내전위

호일오라실적 벧일을인유호시기의니르시고모

든스위 정섭의방해로오시니미양단의 과나

전파호사 에강잉호야님호심을탄식호샷다

호를지내신병환이미류호시니대개오십년

정소의근뢰호심을인연함이오 불성의벧

범을이에쫓츠시니이에노대쇼조의슈고논

호름을 명호샷다 등궁이정정호시면당터는

호하 아롬답다문왕의낫타나을무왕이니으

시니소랑호며우러오르기오래은지라외늘그

시매순이섬정흠파긋흐시니스세엇지가하
말니잇고오직 저궁의증덕이일즉영발은
시고북으심어낫타나시매흥은무리들이두
리며새림이빠히여잇또다의리의그두뢰를
스못 보시니샤특흥말이용남흥싸히업고
귀역이그간상을다드러나니 볼게보심이
날이비친듯흐샷다므릇조정의탁난은최는
사름이뉘모로리오마는궁중의체결은자최
는 우희셔흥노아르시논배라비록 대성
인의함포하고판흥은신도량이과미를보지

아 니 사 나 쇼 인 아 규 스 흥 며 슈 탁 흥 느 간 성 으
 로 비 스 스 로 의 심 파 저 히 흥 을 버 도 다 이 럼 으
 로 비 나 라 히 척 년 호 무 리 들 아 감 히 동 흥
 을 원 슈 로 이 보 느 무 음 을 품 어 또 단 한 켱 낭 귀
 님 군 의 북 음 을 김 히 새 리 매 드 뒤 어 발 호 흥 쏫
 을 기 르 고 발 호 흥 큰 고 기 통 발 의 위 나 단 말
 니 낭 귀 북 은 풀 을 새 러 시 려 흥 라 송 셔 미
 원 이 제 죄 틀 스 스 로 알 매 점 점 불 귀 흥 색 롭 곱
 초 와 또 다 이 불 케 는 모 약 흥 누 알 이 나 흥 역 제 왕
 을 퍼 려 풀 을 알 고 기 만 이 도 호 흥 아 제 왕 와 언 을

한글서체

三

창설하야안파뵈려문은의후게하니니르

지아닐배업고소사름을버려 공금의동

정을슬피디장춧엇지화자하던고그런고로

성명을을 디명이라시 명 을남용이라 나리오심을당하

야더욱 대척을힘버막기를도모고도다닌

한은싸히폐부에이셔 폐부는나라의 제형의

남은위엄을빙자하고후겸은이턴성요겨라

그어미르세고사오나음을훈가지로하도다

화엇음은품어져희훈계교를쾌히하니곳

하야아람죽지아니미세가지라하기의나르

고 그 우호 길을 빙자하야 번복 할 씨를 쥘 장하
니 대개 그 사치 못 할 죄 훈 가지 아니로 다 과션
로 모라 부리느바에 삼복과 조애 되고 언의에
서로 통하느바의 응견과 호시되도 다 문득 상
운의 요피로 음을 변환하야 내고 니어 약연의
상외등을 타나고 온실쉬라 훈은 영훈 말을 지
어 내야 공판을 제거코져하느계교를 하고 옥
당식인은혜를 감격하야 감히 나라편사름이
라 니르느노도 다 지어 흥낼 상간의 흥악함은 이
의 태복과 과스년말에 낫타나 낙덤거르심

을의심흥야원망을방수히흥니적덤이대개
알리아마음이잇고송나라수괴론을지어
만이협박흥니스수로이드림은오히려여시
로다흥그물에모라다죽이려흥는게교는지
희와찬히아와형이긋고괴판이라흥며음
참타흥편지는상노와선히다이인애로닥혹
상소를주머니에다코마르쳐시길류를듯보
니본디동석로썩늘거늘혹병권을잡고간담
으로사피니므숨일노어두은밤의닥드논교
비룩늦치서로밧고이나다창죄서로나엇노

다급흔귀틀이 동궁에겨오실새에서로가
려다니슬프다그위턱흔지라음참흔씩흔등
극흔오신후더욱낫타나니상각흔매듬연흔
도다다헿흔야모든역적이다그죄를즈복흔
매오놀을두미고취힘이선고영선당의션_영
당은화흔의화롤비즐즈음에동궁을도으_션
엇던곳이라다흥대바던에지극히저인흔심
시니애연흔다흥대바던에지극히저인흔심
이오모든흥적이저희흔눈중나라쳐분을
결단흔시니거룩흔입다우선대왕의큰도량
이샷다새에또흔흔두신하통냥흡의이셔길

이우리소빅년 종샤를편안케하도다척슈
로하늘을밧쳐시니좌우로궁뇨의셔도음
이오호상소로턴문의브르지지니강개호
소직의외로운충성이로다태산파반석깃지
편안호공이실노우히시여아리셔보호호
가로말의아카시나소귀를셔라쳐변호는포
리논다성명의미룬호심이로다이에칭트
를호호매밧쳐불허을일이더욱급호도다
하늘위엄이다솟가지쁘는더엄숙호니금부
에옥안을가히징함홀거시오사름의눈귀를

천추에 세우니 석실에 소첩의이에 잇습거니
와 그러나 모든 우옹한 류를 위유함은 도리
는 일통글을 지음만 그치 못함도 다 책너의 권
셰 장대 하니 오히려 남은 두리음 이만 습고
궁중에 일이 비밀함오니 다 알가 어렵스온지
라 이럼으로 조정 신해말씀을 올니와 영지
를 밧즈와 형을 베프도다 니하일그를 권슈
의 올니오니 비컨대 추추에대문그좁고간간
이 연설파소장을 너흐니 소감의범례들의
방함얏도다 그와쿨파계경을 새치니이의근

본을싸히며근원을막습고붓죏고험죏옹호류
 는셔롯데니또호더러음을함용호시며습혜
 곱죏곶호샷다므롯데혈괴를먹음고병이의만
 임가진류다안개롤헤치고하늘보듯호음을다
 흥호야호니비루셰롤두려호고은혜롤싱각
 호눈무리도거의또호더픈거슬열고괴리온
 거슬업시흠곶호리로다던디에세워어거지
 아니호며금석을새여변호이업스리로다공
 유쥬상면하는은상성의즈질노배지극히
 험한새에쳐호오셔보은신디혜셔어나오

시니 진실노동인양하며 종의 한가공무들조외
하시고 하 놀아 롬다운명이 도타이도으시
나 크게 빛나고 오랜업을 여르 샷다 이에 전을
징계 하야 후에 삼가는 뜻으로 버 김히 리를
뚫히고 의를 바로게 하논 도리를 진념하 샷다
필법을 크게 쓰고 특별이 쓰논 티분치 오니 니
미망냥이 정사를 도망치 못하 고 세도를 극에
모히며 극에 도라가게 거느 리 석니 상설우뢰
은혜와 위엄을 굽베프 샷다 복념산등이다
유우 하음으로 배의 램이 편짐을 당하야 디

션은 명호오신전지근추호시니슬프다
 닛 좁지못호고피를색리논모든정어적절호니
 쓰임기롤오직삼가도다편집의슈고를약간
 호으나감히이클이조못조셔타호오리잇가
 역순의분이크게북으니취일흥을도라보고
 의를싱각지아니호리잇가슬프다인심이오
 래함낙호니춤아그새의치장흥을니르라
 장은역적의형세 호상을장춧민물호를제북이오
 생호단말이라 나거의빈세예북은거울이되올지라이제드
 리옴기롤당호야호갓항공호음이근절호오

지라찬집항은명의록세편을삼가전문과호
가지로버 든이오니무임터절병영지지라
신상철등은성황성공계슈계슈근언호니이
다대광보국승록태우의정부좌의정검팅
경연소감춘추판소신김상철등은근상전호
는이다

此以... 爲... 其... 命... 長... 文... 也...
 中... 三... 解... 一... 也... 也... 也... 也... 也...
 又... 也... 也... 也... 也... 也... 也... 也... 也...

하찬집형。 전표

병신팔월이십사일토역반 교항라항신

후

전활턴을님항야반포항기난중외신셔로항
여곰다난역의근원을아라속표의후항기에
니르지말고저항이니그슈미와원류는가히
교문에다흐배아니라대신이이의알외여시
니의를바로게항고리를복힐도리의일편성
셔로후세를복히보이언저못항거시너형을
베프러찬집항절츠를악려항야거항항라

십일월초삼일

비망귀라 텅 정새 역적이 신임

신임은 신축임
인년이 나 봉회

비구 등의 그 새 역적은 의셔 더 하 되 신임의 논
구려 치신 말 숨이라

은이 제 선지엄준 하야 그치지 아니 하 고 시방

의 리는 호히 못 하야 셔점점 풀니 꺾져 하 니 그

잠간 얼골을 밧고 인재 흥 흥의 논을 창설 하야

기만이 역적의 편을 보호 하야 하 늘 슈토를 부

디 이거 고 알 나 아닐 줄을 어지 알 니 오 오 회라

파인이 모든 역적의 게엇지 일 호 나 스 스 로 이

조화 하며 의 음이 이셔 그리 하 리 오 그 당이 성

흐면 나라히 부리를 싸히 업고

엇지 될 줄 모로
만 말삼이라

그게 피발뵈즉 내몸이 그칠 곳이 업논지라 처

음의 저허허야 침식을 거의 폐하고 중간의 박

익허야 몸과 나라히 망애허더니 짐내하늘

신령을 힘납소와 위티흐를 두로 허평안호디

나아가니 무릇 조정신하들은 시험허야 생각

호랴이 새를 당허야 동궁위평안호랴 위티호

랴 나라히 흥호랴 망호랴 또이 무리 다 천리와

권신인 주훈영호고 추허호재

호은 짐소어
공드만 말삼이

후오 취허난 현허호고 기려 호누사름이 아니

이 제 니 러 러 양 으 로 늦 두 며 음 으 로 등 두 어 입
 으 로 그 러 타 흥 며 무 음 으 로 비 방 흥 는 사 롱 이
 엇 지 업 스 리 오 대 더 오 놀 의 리 는 다 만 현 하 의
 대 방 을 두 고 현 하 대 경 을 세 을 거 시 니 은 큰 제 방
 을 막 고 거 시 은 큰 제 방 나 라 히 가 히 망 흥 지 언
 은 큰 신 부 주 의 의 라 은 큰 제 방
 정 의 의 리 는 가 히 흥 리 우 지 못 흥 이 북 은 지 라
 여 원 듯 트 경 계 와 은 큰 제 방 지 어 위 여 도 흥 뒤 러 흥 는 거
 스 로 억 적 의 무 리 패 흥 야 도 흥 뒤 러 흥 는 거
 못 차 자 아 나 흥 는 단 비 흥 말 숨 이 라 서 리 를 밭
 는 큰 심 이 실 노 처 츠 음 위 의 흥 썬 의 썬 비 흥 이
 이 시 니 니 창 흥 일 과 를 맛 당 히 미 쫓 차 는 리 와

볼지니라

십이월이십구일

전왕대더글민드노도리귀흥이근엄호디이

시며또오늘신조된재성명이호번그가온대

들면은득훈인귀관뒤니_{인사}관뒤오_{아니}들면_귀

신_회삼이_오라가히두렵지아나_호랴_호물며_천

의쇼감이레노쇼훈이_선조의성헌이온지

라므릇정원일귀종의상소와차주로의논훈

바사롬이국옥의간년_호거나역초의긴히난

재아니어든일병귀록지마라배너그립고엄

흥이이중도의맛게흥야이일부의글노흥여

꿈만세의관화되게흥을 관화는나라히뜻그
뜻흥법령이라

흥여꿈찬집제신으로알게흥라

경유이월초오일

전활모든역적의단은비록천의쇼감범례를

모방흥나여러돌가온대도쇼흥경연일귀 경연

일외인문성공내의
의지은척일흥이라 규모를의방흥야초목을

색라가며납단흥술을흥여꿈찬집령이알게

하라

가선태우형승정원도승디검경연참찬판
춘추판슈찬판예문판직제홍양셔원당규
장각직제홍신홍국영은성황성공돈슈돈슈
근빅비상언우듀상연하복이신이나흐로
닐으오면적습고혹식으로닐으오면멸블고
와빅가지의놈과긋지못흐을썬아나오라마
장사룸의아래잇습거늘석갈_{말하거호만}흐입
던처엄의특별이우리영종대왕권고흐신
은혜를남소와길흐선비라흐시논성피증
필_{소인}이_뜻을_가지_으의_이천_호몸_의밋_조오

시니 구구히 스스로 효력하고 저 흠은 눈과 입을
이 감결무지함은 더니 불행이 선애상반함
시며 보답함을 길히 업스온지라 중야의싱각
함오매 눈물이 눈의고 두함은 줄을 새듯지
못함은 지라 밋우리 던하를 섬기오매 던
디망극함은 은혜를 닦스오며 천지의 불세의
테우를 만나오니 냇사름의닐은 바닷그로군
신의의를 밋고 안함으로 끝우의친함을 의탁
함은 다함이 텅히신의오늘테회를 구루침이
로소이다신이 문회한미하고 자최고단함오

되오직 언뎨해에엿비넥이시며사름이셔리
고세상이귀홀홀오디오직 언뎨해빠혀내시
며직죄성귀고식견이적소오디오직 언뎨해
맛자사너신의일신모발은신의두온거시아
니오나신이또호엇지홀야이를 성명지듀
의엇조와워를지샹지블의닐워온줄을아지
못홀입논지라스스로두리고스스로의심홀
오매엇지일즉속소의알새이시리잇가오회
라향닐일은오히려총이닐으오리잇가화란
의궁싱_{케현이}라_{말숨이}으로부터나며변피척완으

로닐 위온 지라 스빅년 종새 그 장 첫 브 리 올
곳이 업스 올 지 너 싱 각 호 오 매 췌 프 르 고 녀 녀
호 오 매 담 이 췌 니 오 니 바 야 호 로 그 새 의 먼
하 의 위 티 호 심 이 가 히 급 급 호 고 위 티 호 신 지
라 슬 프 다 우리 영 종 대 왕 이 지 극 호 췌 의 호
시 는 정 과 또 일 월 고 치 불 췌 오 심 으 로 버 간 적
이 계 교 를 발 뵈 지 못 호 읍 고 흥 되 스 스 로 패 호
온 지 라 오 회 라 닛 접 지 못 호 읍 아 여 하 늘 이 놓
호 시 고 췌 하 듯 거 읍 이 가 히 비 거 형 용 치 못 호
올 거 시 오 또 호 오 직 우리 왕 대 바 년 이 태 입

파태스의덕으로배종샤와국가의동향심
을싱각향샤우리연하롤보우향시며우리
의향하롤무의향오샤집경당탕제와슈라샤
의후향거롬도잠간셔나슬피지아니심이업
슴고영선의온양향는즈음의반드시은져말
슴파괴운으로슬피오샤미리간명을색그시
고대척을돕조오신지라이는태신과공경의
아입치못향는배요조정과팔방의듯슴지못
향은일이오나오직연해체루향시고신의
게하표향시매신이엄억향입고연하세

밧드러듯조왓소오니일월이비루오래오나
황연이어제곳조온지라대비현조부지은
과악대지덕이가히영종대왕으로만세의
필미호시며현하의유소호오실거시너이제
분야호로모든역적이듀륙의나아가고의리
크게불아소오매대신파제신이척조민드옴
으로듯토와청호와너후의전호야드리오고
저호오니이척은꽃금척지문이오너엇지호
갓새름이리잇가신이속야의분주호옴으로
찬집호입는역소의참예치못호입고척적이

온후의야 비로소나 오와보오며 차즈

대신의
해명의

루드라논차즈
를닐음이라

비답이느리오 매업터여 넓스

오니 무상호온 천신의성명이 그중의반이나
잇스와외연아 보호의듀인이 되었스 오니 회
희라역어인일이 온구하던하의외롭고위티
호신색를당호야진실로련성가진사름이오
면뒤아니말혈호입고절치호와역적과더브
러호가지로사지말파저호오라잇가 마논특
별이신이호회를언연호오와자최노속의모
침호온지라님의아저못호입눈일을아온거

시잇소오며놈의듯지 못흐온일을듯조온거
 시잇소올썩름이오니므슴척촌의공이 종
 샤위티흐온썩보익흐옴이잇소을이잇가그
 조야의초심흐야죽기롤브리고님균을위호
 흐옴은신이딩민시만긋지 못흐옴고손으로
 강상을심으와다만국가만아옴은신이셔명
 션만긋지 못흐오니이는다 성명의부축흐
 시는배며현산의양주흐온배라오회라공이
 업손거슬공이라흐시면이논우흐로셔그정
 소를일흐심이요공이업고스스로공이잇노

라 호옴은 아래 사름이 제 몸을 속이 옴이라 텨
다 신명이 남 호야 우희겨 시고 텨 호야 텨 희겨
신저라 신이 엿지 감히 말숨을 꾸미며 네 소
양으로 텨 하알 피호리 잇가 열청호역서거
의다 호옴고 척조를 삭여 반포 호옴이 갓가와
소오니 신의 온포 호온거 슬오늘베프지아니
호오면다 시엇지 거능리이 잇가 오히라 조
던성덕이 저고치거 룽호시오나 텨양호는도
리를결을치 못호오신밭자논대개 텨해거
특리시논배계심이오나아척편초호을씨의

차소와전문소이인지하재엇지훈말씀도우
 양호와 성모은혜를보답지아니호오리잇
 가복원 련하느신의소본을가지셔찬집
 느모든신하의게 하순호오샤편슈의발휘
 훈바를싱각호야배 성호를빛내시며신의
 의근음의분수의지난바말씀을산감호야배셔
 법을엄케호쇼셔신무임병영귀근지지호는
 이다

비답호야졸오샤디상소를솔피고경의고심
 을도호솔핀지라 동쇼련 비 보우호신덕을

내엇지표양홀모음이업소리오마논 휘겸
흐시는 성의를를앙체흐음으로호번도조정
의닐은지못흐엇더니경의아름다운거솔우
흐로도라보내고저흐는모임과 주면성덕
을유양흐고저흐는정성이이러트시곤지흐
내내모임의더욱감격호지라맛당이찬집호
논신하들로호여곰경의상소의베픈바와깃
치흐야삼가척주우희쓰옵게호되지어경의
상소가온대스양홀말은이엇지경이가히배
사름의게스양홀배려내가히배경의게스스

로이 할배리오희라 경곳아 니러 면어시 내오
놀날시 지니 르러 시리오 또 본척 주롤 보건대
경의공을포장하 구경의 충성을아름다 이녀
이미 스스로 일세의공의 되여 시니 경은어시
버스 양하리 오

귀특홀외에 조목을 좃차의 논호야 배스리
법을 의방호다

일은 조령신하의 토역호는 상소와 계스와
모든 역적의 국문호 문안을 다 초략호야 올
녀번거호거슬 업시 호고 요긴호거슬 모도
와삼기 고엄호기로 쥬호니라

일은 덩법호죄인 밧기 비록 은혜를 남주와
작쳐 평비호 단 호신자도 그 정절이 간년호
거시 경치아니면 귀특호고 비록 국령은 안
과역적 초스 밧기라도 죄범의 긴둥호자는

· 석한특별이 귀류하다

일은요목을 좃차논 단호글을스실 귀류한아
래한스름스초와버분별하다

형의 푸언이 권일

주 올미 십일월 계 소 지방 신 육월 갑 조

영종 대 왕 오 십 일 년 이 십 일 월 계 소 에 명 호

사 어 제 조 성 편 과 경 세 문 답 을 동 궁 의 진 강 호

라 호 시 다

이 새 성 슈 임 의 며 질 에 오 르 시 고 환 휘

히 만 다 더 호 시 니 정 섭 호 시 는 가 온 디 미 양

군 국 의 소 무 로 배 근 심 호 시 니 이 호 십 월 초

철 일 에 연 화 문 에 상 참 을 호 호 실 서 담 회

첨 극 호 시 니 제 신 이 감 하 일 을 알 외 지 못 호



고 주시 도라 드르셔 왕세손씨 하교
하야 골이, 샅더전년 녀름의 너를 명하야 명
네 궁일을 간검하, 라 함이 아비 후적은 일이
나 궁중과 부중이 드, 틈이 업고 근리에 대소
테 향을 반드, 스 들 노하, 여 품 씩 흥 함이 내
뜻이 김픈지 라 오 놀 내 근력을 시험코져,
러 니 만 분 도 강 잉, 을 길히 업스니 충직 속성
하야 날을 지성으로 섬기니 버, 라 논 바를
결연 허져, 브, 리 직 아 니 흥 거 시 니 이 새 를 밋
처 정, 스 를 디, 텅 흥 을 내 친히 보면 엇지 빛나

지아니리오 세손이 감히 대답치 못하야
게시더니이새에니르러신원임대신이집
경당의입사하니상이곧으샤디근리
선괴터옥늘연하야호장공수도슈응이어
러오니이디하고만괴를엇지하리오국소
를성각하매밤의차지못하연저오란지라
춤저노론파쇼론을아니니남인파쇼북을
아니니나라일을아니니조정일을아니니
병판을뉘하염죽으며니판을뉘하염죽호
즐을아니니이러듯하교종샤를어니곳

의 두 귀 오벳우리 황형이 세제가 흐냐 좌

위가 흐냐 흐신 하피겨오시니 경묘신득의세저던

리호하피겨서다 즉금싸는 황형싸

의셔더흐지라 누즈하교를흐고저흐되 조누

는 전후두조를귀 충조의 덕임을 상히을

가저히흐거니와 텡정은 국조에고식이

시니 경등의 뜻이 엿더흐노 흥난한이 죄그의

정이 내드라 더 답흐야 골오던 동궁이 곳

흐야 노론 소론을 알미 부질업고 곳흐야 니

판병판을 알미 부질업고 초정일에 니르러

나더욱곳하야알미부질업나이다 상이
히히하심월오래하샤골오샤되경등이네
뜻을아지못하니장초나라일에엇지하리
오이제다시경등의게나를거시업나니출
하러내손조로하여곰내심법을알게하리
라하시고드되여두척진강하라하신명
을나리오시다

신등이근안넷성인이장초련하로배사
름의게전코저하실시반드시련하다스
리논법을아오로전하신내순의정일

히히라^하히신말^하숨이이일이라

하세순이러
하를우로

신기
말전
숨하
이하
라하

오적이두척

어재^하는^하우^하

리성조오십년몸소^하행^하시고^하모^하음^하의

어드샤^하훈^하계^하하^하염^하즉^하하^하척^하을^하민^하드^하샤^하우^하리

성^하상^하을^하수^하시^하니^하부^하탁^하의^하정^하녕^하하^하심^하과^하

슈슈의^하광^하명^하하^하심^하이^하아^하름^하답^하고^하거^하룩^하하^하신

지^하라^하오^하회^하라^하성^하조^하의^하권^하근^하하^하시^하고^하정^하섭

하^하신^하새^하를^하당^하하^하야^하종^하샤^하의^하의^하지^하함^하파^하신

민^하의^하브^하라^하노^하배^하오^하직^하우^하리^하성^하상^하뿐^하이^하시

나^하나^하라^하일^하파^하조^하정^하소^하를^하우^하리^하성^하상^하이^하아

는 법지 아니하시고 뒤맛당이 알리오함블며
고 일일을 주판함은 세조의 덧덧함직척이오
정스를 더신함은 불성조의 고신니진
실노테국함는 대신이 이시면맛당이 나
라히명치아니셔도 그양청함염주함거
든슬프다저적신은몸이보필함는곳의
잇고귀로근축함신 하교를듯주오더
오직도품도감동치아닐뿐아니라이에
감히드러내여저희함야그말이패약함
고눈리업슴이다시인신의네업서우리

고성조의부탁하시고 슈슈하려 하시느
지극한 마음과 큰 계교로 하여 몸들이지
나고 세오라 되고 봉행치 아니하니 그
닌외로 체결하고 전후의 선동호좌는 아
직닐는지 알고 연습에 알인이 한말의
역적의 모음이드러나고 역적의 죄안이
일위시니 그 통분함을 가히 이거다

계묘에 스병항, 샷순감군 낙점을 동궁에 밧집
고니 병비정스를 중판이 대던에 품항은 후에
낙점을 동궁에 밧조오라 하시다

이 날 상참에 상이 갓쓰시고 동궁을 의
지하야 안자겨 오시더니 탕하논 소리 못지
못하야 빗도로 벼개에 누우셔 골으 샅디내
귀운을 가히 알지라 대신이 오히려 듯호려
하시고 인하야 제 대신을 나아오라 하샤
하피천만 밭숨 췌안니 어늘 흥닌한이 몬져
나와 힘벼듯 호고 몸득물너 감을 청하니
상이 골으 샅디내야 흐로 천포하랴 하니 경
등은 물너가지 알나 하사 고인하야 천교를
쓰라 하샤 골으 샅디불긴 흥공소논 동궁으

로드리라수일을기드려이에셔더흔하파

전위호현노라이시리라호시니승디_{승디}

호신전피라이도라손을

이_명라_빈부_을싸_허쓰_려흔_대닌_한이_도라_손을

저어말닌지라_상이_콜샤_디받_전교_를

너으라호시니_한이_소리_를놓_혀디_답호

야_콜오_디뉘_감히_이전_교를_너으_리잇_고

상_이콜_샤디_순감_군부_표를_일병_중관

의_손의_맛쳐_시니_도모_호야_면호_는페_업닌

줄_어지_알니_오병_의경_한익_뉘콜_오디_호성

명이_우히_계시_니이_무리_를
중관을기독
친갈이랑독

히근심할거시업누이다
샤의골은샤더
공소슈응을주니로되신하야
행함은벧규
례만하니내또한일즉하였누
이노되리
령정과크게나룬이라
닌한이골오더의의
주니로하기로하교하
신즉신등의가히
알배아니나이다
샤의지개를다치샤골
은샤더경등은셀니
물너가라하시고인하
야승전빛출명하
샤순감군단조를동궁
으로드리라하신
하교를너리오시나
이
샤상의이득결단하
샤어보와겻조를

다 동공에 옴겨 두라 명호 시고 전피
날마다 서너 번 느리 오디닌한 이 말을 놀녀
힘배막음을 인호야 일이 못 참내 흥치 못호
나라

신등이 근안전월 초칠일에 안호르드
르신후 하교를 조정은 아지 못호여서
되닌한은 알앗고 밋이 날니르러 대척의
이미결단함과 성의 더욱 근절호 심음을
공닌한 이 호호 연승 하교호 신전에 듯주
와 시되 오히려 호글 못치 방차호야 호일

이 일을 가져 허야 안 존 초례 모든 정승
의 뒤희 이 시 되 듯 호기를 부 뒤 문 셔 후 고
전 교 출 입 후 기 논 승 디 의 직 척 아 어 논
지 휘 툄 임 의 로 후 야 입 시 후 측 만 환 후
야 비 봉 후 며 나 온 즉 귀 이 여 지 리 오 고 정
소 를 지 니 로 디 신 후 시 기 에 니 르 러 논 문
득 보 디 형 후 사 션 정 후 심 과 고 후 되 전
피 너 리 지 야 나 국 인 이 아 지 못 후 나 우 리
성 상 의 소 양 후 사 감 히 당 치 못 후 시 기
논 나 라 일 이 민 망 후 을 생 각 지 야 니 심 이

아니며 지극호빛을 밧좁기를 싱각지
아니심이 아니로되진실노 슈슈호는
대소틀가히 광명치아니치 못호연피시
니닌한이 감히 신등의 알배아 님으로 알
원재말이 이리 불경호고 빛이 또 호파츰
호니 호호호 청상과 고평호 썩이 에더욱드
러나가히 덩지 못호리 로다

이 세의 화완용쥬의 양조덩후검이 경샤호
야 호실이 업서 용쥬들 빙차호야 방조호기
심문호거늘난한이 감히 붓조차체결호야호

상의정섭호오실씨를타위엄파은혜를도
적호야천주히호더니및령정의존이나
매닌한등이크게두려빅가지로적희호야
게피더욱급호지라안호로이목을비포호

고 이목은저희소소사람을의정의버려두
어나라동정을탐지호을닐은남이라

밧그로도당을모하호와언을지여협박호
며호말숨을놀녀탐지호고또공관의나
라호보호호고저희게붓죈지아닌자
참소호며취방호고부더저희친밀호자
밧고아두려호야쥬야의경영호야정적이

파축하니 성경감이 심히 불은 심은 흥남어
못참내발되지못하니라

신등이근안후겸과닌한두역적이나
라히책년하야부귀이미극하야시되스
스로극악과대죄에싸지기를돌게브이
논자논엇지일조일석의연피리오우리
성상이던지싸혀나영명하샤노치아
니셔도엄우하시니두역적의본다새리
논배오고금의치란음동연이보샤천니
의청스간에함을이히미위하시니두역

적의 그음이 근심하느 배라 근심과 새김
이 서로인하 고몸이 나라 흐로더 브러
소이 디적이 되어 못 좀 내 나라 환후를 덩혀
귀이며 대책을 셔희 하기에 나르 고셔희
함이 부득하야 협박 하기에 나르 고협박
하기를 마지아나 하야 거의 셔공을 동
요하기에 나르 두림이 업스 버릇과 불
순하야 옴이 날노 심하야 그음이 업스지
각판방위의 인함의 보야 흐로전절하거
원남아도 무을 명후엔말을 지어 버려

낭공 낭공은 대 의주의하시고 효순함심

이름이 엄손즉문져우익을제거홀계교

를내야 판우익은 춘방 투셔함는변파조릭

의말에너르러구호지라박천강지괴괴

호일이도모지호가 지일이니두역적의

역적되음이오란지라홀노스스된재가

히다스릴뿐아너로다 흔 관연이리

십이월병오에전참판셔명선이상소함야함

닌한의 덕령져희홀죄를다스리기를청함

니 상이명함샤명선을두카조를터으시고

기부의게치제호하타
십월상참날안희드르셔
붓터모든홍적의씩날노급호야닌한이세
가지일을곳호야알으셔부질업다알외기
신저너르니밧겻말이더욱홍요호야
중일이지극히나르가어려은배이샤되오
히려호사롬도말호재업더니명현이그씨
은직으로서개연하상소호야골오더오직
우리성상이오십년을넘어호샤
호삼이호몰곳호시니소무의번거로음이

조섭호시논디방호로을서
 선효의고소
 를너으시샤오놀
 하파잇스오나지성근
 측호샤족히신명을감동호며돈어틀부감
 호을거서어놀
뜻말의뜻부미
과기위맛다
나과업디여
 듯조오나전얼이십일입
 시예좌의정호
 닌한이감하
 동궁이부덕아라부질언나
 말숨으로방조히알외오나
 터군을능히
 못호리라
뜻은의내님조을능히못호리라
호는재논이님군을해호는재리
 호는재맛당히엇호사름이되리잇고그
 두림이업고방조호기극호지라상참새에

전팅상한익모의알원바좌위족히근심호
거시업단말숨이쇼어이망발이아니리잇
가몸이슈상의이셔한판의일을질언하니
벧대신도이런일이잇느니잇가그날알원
바즈니로호시면신이듯호지아니호오리
란말숨이더욱만만경히하니이제이하
피국가의엇더호대시완디궁금안희셔
마만이호며심엄호종의셔심엄은궁중
이알심령호야만성이아지못호고팔방이듯
지못호면그가히나라히사름이잇다호리

잇가 오히라 던하의 오논일이 명정하 시
고되락하샤 천고의 탁월하샤 근축하 신뜻
이 말슴과 하교소의 애연하 시거늘 슬
프다져 벼슬이 구침의 잇는 재 구침은 백성
이 본단 말이
내 정승을
더름이라 헛문구와 거죽우민 일노보와 전
혀미봉하 기로 일삼아 던하의 근절하 신
무옴파지극하 신덕으로 하 여곰 흐리워나
타나지 못하게 하오나 엇지 통분치아 나리
잇고 제갈냥의 말슴의 글오 단궁승과 부춤
이 다 일체라 하 니 적은 알도 오 하려 그러커

드름을 먹이런 막둥 막대호일이니 잇가
나라일이이긋습고대산이또이긋소오되
감히말호리업소오니산이통곡호고태식
흙을이긋지못호야손조상소를봉호야올
노오니~~부~~붉은명을노라오샤밭비대신의
죄를다소리심을브라노이다상외들매
상이밭비명션을부르샤상소를가지고입
시호라호샤상소를넓으라호시니명션이
넓은대상이문득글으샤뒤올타올타호
시기를여러번호시더니동궁아부뒤야

라부질업다호말의니르러논상여골의
샤디져즈음귀대이알외논말을들을씨의
내북음의도엇더호더니라호시니명션이
골오디신지되어감히이런말을호니니잇
가호고넓기롤반이못호야 상이골의샤
더직호다호시고쑈문지방을두드려셔
하교호야골의샤더그럿타그럿타호시고
주니로셔호시면듯호지아니리란말이이
취발표무르시니디호야골오단닌한이니
이다호고넓기롤못태매명션이골오디금

세왕사름이 누대가의게 위이려 후라 잇고
산이 만일 말을 아나 후오면 이간 면하를
져 버림이라 후고 인 후야 소리와 눈물이 함
괴소스니 상이 곧 샹타 버명선의 사름
되 음의 부드럽다 후엇더니 오늘이 슈립을
후니 착 후다 후시고 인 후야 대신과 디간을
업지 후라 후시니 빙중츠후부스 김상복이 곧
오디고 날연 설을 선은 듯지 못 후엇소오나
취명선이 반득시드르 곳어 잇소오려이다
상이 명선드려 못 오시니 명선이 디 후

야 할오디신이 궁판의말씀을듯조오니
동궁의일노배상소하려하시다가맞쳐드
리지못하엿다하더이다 상이왕세손
상소를드라하오샤너어알외매 상이
콜으샤디과연이말이잇도다대소헌송형
중이콜오디곳하야아라부질업단말씀이
신이옥당의잇소를싸에식목_{편은 명을}을곳
하야 성심의머무르지마옵쇼셔말과깃
소오니신은고른줄을아지못하올소이다
상아콜으샤디셔명선의상외올하냐그

르냐형중이 곧오디심문이니이다 심문은

어찌로물기을 나 상복의말도모호하다 모호

호단말이라 알^음하^라신지라드^어명^호오^셔형^중

파^의모^와닌^한을^다삭^거소^판하^시고^상복

은^파적^불셔^하라^하시^고명^선은^단단^호혈

충^이라^모년^의호^날곳^은신^하를^보왔^노라

하^사가^의태^우가^조를^더하^시다^무신^의

하^교하^야골^은샤^디어^사름^을내^보이^아더

니^이번^일의^가숨^의기^득호^혈성^이로^다백

안^이암^아하^고 암아는말아닛대^신의^위

用... 一

흥거노랑거함몸은새쳐능이제아비를성
 광하노이노팅히집의효도하고나라의충
 성함이라고판체가하아늘을두엇다너를
 거시오내모년의또호신하를어덧노라뎡
 주계군심원이호임소홍을논박하고일홍
 이속삼강땃티올나시너중요신인소홍우
근박을 한엇 나그 후속 삼강 행 질 의 란 사
 름은비록사라섬정문하여도오히려파치
 아나하나엇지탄소호가조의긋치리오하
 시고명션을특별이도총판을제슈하야구

차하고의위호는세계로호여곰다그충성
을알게호라테문을지어누리와싱정문을
더신호야승디롤보내여고판셔셔종옥의
게티테호야버말세에천백사름을용동호
는뜻을보라호시다

산등이근안후검의모지난한파모든역
적을세고안밖그로요악을붓쳐내여사
변이파추호더내십월초칠일안희셔호
산하피이심으로붓쳐척년호모든역
적이이미외정신하의셔몬져드러알고

흥흥썩썩바포흥야열의셔팔구나니르
게되었더니그후십일월이십일연승
하교와밋블긴공수를동공썩드리고
더점흥라흥신명이나어느린주우
흥로서민양흥번하픽이사연모든역
적이문득흥번흥흥게교를더흥나이썩
를당흥야더령흥지논태척이이익결
단흥여시되더령흥라흥시논성명
이밋쳐느리지아나흥나모든역적의빅
게로더령흥을악으려흥논재그령썩이

예더욱급하고그게피소 디령을막으
려할뿐아니니위티하고망홀귀틀이호
흡스이에넘박하니궁관이소성을브리
고홍역의청상을호번불치려하야고게
피비록결단하야시나디체혐의잇는지
라다만화만지촉할뿐이러니션명션이
능히분하야몸을도라보지아니하고
나라급흔일의드라못참내할말씀이우
러러합하야수일이못하야대척이셀니
평하야배우리소박년큰귀업을길히곳

게 하니 셔명션은 진실로 텃닐온 바 위 좃
이 오 그 공이 또 엇더 하 리 오 송형중이 당
치 아닌 말을 강잉 하야 인증 하야 난 한을
위 하야 분소 하 고 심문으로 버명 셴을 비
척 호 즉 역적 의 형세 처 성 호 증을 가 히 알
거 시 니 저 츠 음 식 선 대 왕 일 일 곧 치 불
우 심 이 업 던 든 명 셴 이 흥 도 의 게 어 육 이
된 배 오 래 리 니 슬 프 다 국 개 그 오 늘 날
이 이 실 가 시 브 냐 오 회 라 몰 세 호 성 각 이
으 램 소 록 가 히 닛 지 못 하 리 로 다

경술의 상이 왕세손을 명하샤 정소를 더
령하라 하시다

이몬져 상이 특별히 명하샤 장계종
품청훈자를 동궁씩드리라 하시다 왕
세손이 두 번 상소하샤 소양하셔 너
아니 하시고 밋세 번 지상씩드려
특별히 정원의 비망귀를 노리 오샤
그런데 이바론 연후의 말이 순하
니 명어 광명하고 명어 약전
반반하니 하
조는 지실하라 하시고 인하야
도 승디를

명호샤 왕세손상소비답을베퍼온야샤
더이제일흥이바로고말이순호야동국이
두번평안호여사니충주논진실 노닐성
조성력을법바들지어다오회라주손이서
로의지호더니장춧당의님호야조참을바
들거조를보니네게만번다행호고네게가
히영친이라닐을지니모든정사를주셔히
솔펴감히조곰도방글치말다우리삼백년
호종국을붓는지어다호시고인호야텡의
정김상철등을불너 학교호야글야샤더

일흥이바로지아니호즉일이순치아니호
니니이제충조의경현당의조참바듬을보
리니내게엇지영화아니리오상철이곧오
디이제비록밤이깊흐나원임대신과밋네
관을불너령정절목을계하호심이엇
더호니잇가상이곧은샤되그리호라이
제는스면이동구도다호시고종묘와샤
직의고유테문을호명호야쓰이치고충외
에샤를반포호고과거를베퍼선비를취호
라명호지고또명호샤령정조참은경

현당의셔호고태디는존현각에셔호되보
름전의세번차디는대조의입시호고보름
후의세번차디는쇼조의입디하라호시다
이른날약방계수롤 디답호야골야샤디
엇지충지장성호야날을위호야형정호호호
을뜻호여시리오어제밤후에무음이쾌히
퍼히노라충지나라일을녁이나나삼박년
종국이거의다솔지라깃거엇지잠을자
리오호사다○왕세손이쌍소호샤형정을
쇼양호시나 허치야나호사다○의정부

호왕세손^호텡정절^호목을^호야^호 계^호니^호디^호답^호

야^호골^호야^호디^호세^호손^호이^호디^호리^호니^호이^호안^호큰^호회^호업^호

논^호지^호라^호부^호탁^호이^호득^호인^호호^호니^호엇^호지^호홀^호노^호쑤^호손^호이^호

하^호례^호를^호바^호들^호뿐^호이^호며^호낸^호들^호엇^호지^호소^호양^호호^호리^호오^호

그^호날^호경^호현^호당^호압^호희^호엇^호지^호순^호례^호로^호호^호리^호오^호현^호현^호

대^호쥬^호법^호악^호이^호라^호넷^호소^호쥬^호의^호노^호다^호안^호고^호취^호판^호잇^호

터^호니^호이^호번^호의^호득^호벌^호이^호현^호현^호호^호게^호 평^호호^호시^호다^호

베^호플^호기^호를^호의^호주^호의^호터^호너^호히^호내^호깃^호부^호를^호표^호호^호라^호

호^호시^호고^호후^호의^호또^호 명^호호^호야^호텡^호정^호쥬^호참^호의^호법^호가^호

의^호장^호장^호어^호라^호의^호을^호쓰^호고^호쥬^호텡^호장^호파^호금^호부^호열^호을^호비^호

라^호고^호진^호하^호호^호새^호의^호빅^호관^호이^호쥬^호부^호으^호로^호황^호례^호호^호

고령정후의 宗묘의 천백호실씨의 年

청으로 부터 옥교를 타게 호라 호사 고성의 외

의슈에 준병을 다 훈련도 갑과 갑위영어영

령으로 호여 굶비종호라 호시니 다 특별호

례라 다 의 의 장 과 복 학 과 군 병 은 상이 하교

호야 골이 샴 닷 존 등 차 아 나 호면 위 영이 업

느 나 이 러 호 연 후 에 야 안 심 이 덩 호 리 라 호

시 다 ○ 면 활 오 놀 날 아 손 의 맹 음 을 하 하 알

거 시 니 서 료 의 지 호 연 치 벗 히 노 내 당 당 의

호 번 위 로 할 지 니 우 러 러 보 감 을 법 바 다 초

손이바를정현당의셔출추어도맛흐니십
오일의세손이음식을베퍼오면나모맛당
히음식을깃초와기드릴거시니던성의빵
저를불나고조손이현가온대셔흐가지로
먹고나바든음식은정원을수고충조바든
음식은출방을주라흐시다
계축의 상이경현당의님어흐샤왕세손
텅정진하롤바드신후왕세손이경현당의
좌당하야 텅정쇼참을흐샤빅판하례를바
드시고 상을되셔딘찬흐시고구작
잔아흠
번드러

그레 레를 힘양사다

양이 친히 깃부물귀록함은 시를 지으시고
약공을 명함샤 섬의 올라 노래하라 함시
고도 친히 두 귀시를 지으샤 왕세손을
명함샤 입시 제신으로 터브러 기진하라
함시다 선교판셔 유방이 어 제반샤 눈을
넓으니 졸오디 님어 오 십년의 일년이더함
고그나 흘무르니 팔십이 오 십세히라 위양
조의 어 손이그손의 어 조란 말을 일컷더니
이 제헌 현은 특별이 정응의 벼 풀고 충지 조

참을현당의셔바드나나라흔빅디의평안
흙이잇고우리빅형은만세의경식이잇느
지라아름답다충지능히날우흐느효를아
니
이제나라경사한당원들여아이시리오
쥬창이^{중상은}라^은라^세제두인흐니조선이거의다
시될지라친하글을저어문져종묘와사
적의고흐나아름답다충지온져당의올나
조참밧고나논막대를집고강앙흐야좌의
올나하례를바드나오늘날의례를내엇지
스양호리오아름답다오늘날경운의장춧

당전의어리고만민이다국중위깃거호라
호다넘기를못츠매 왕세손이스비를항
호치고빅판도호호스비호야산호호고
왕세손이당의오르샤시좌호시나 상이
명호샤공시인들의구유지와요역을일년
조를탕감호시고호화문의셔환파고독
을날을 주셔배빅성으로더브러경스를
호가지로호노빛을뵈시고호 왕세손을
명호샤십오일의 종묘의던알호라호
사다 왕세손이억션판파고룡포록고초

우샤령경조참례를헿헿치고 왕세손이
당의안즈샤빅판의진하를바드시매 샹
이경현당의님헿실시 왕세손이시좌헿
샤음식을나오시니 샹이곧으샤디오늘
일이가히천고의업타닐을거시니깃부를
표헿노되업저못헿리라헿시고드터여
명헿샤구착례를헿헿시니 왕세손이테
일작을나오시고풍뉴를알외니헌현은뜰
의잇고춤추문섬의올으다 샹의어상의
곳출거두어제신으로헿여곰썩즈라헿시

고 상이 드라우으샤 삼하 즐기시나 제신
이 다 천세를 부르더라 이 날 저녁의 상이
접경당의 님어 하샤 승대를 불너 전교를
쓰여 골으샤 퇴내 칼십삼세에 쥬야 동동하
니 하 나인 즉 튜 모으 하 나인 즉 빅성이 라 오
회라 나의 호테를 돕기는 오직 너를 보라
니 네 만일 조금이나 방홀면 이는 날을 저
브킬 뿐이 아니라 척강을 쳐 보람이 다 오
화라 남군과 빅성이 서로의 지함이 조손이
서로의 지함았 하니 벅적의 슬인 들었지 앓

기리오호신 하피게셔팔도를보시기로
호집곳치호시니이제네처음정셔라팔도
의빅성이디리호를듯고다눈을씻고기드
려서로닐너곧오디팔십오군이충조를명
호샤디리호시니그전과호호냐거의나으
랴호야이러트시과다호거시니오회라만
일후그러치아나호면운예로브라빅성
의모음이엇터호료이를싱각호면보년의
내모음이전의셔만비나호지라승자가져
천하나네모름즉이디담호지어다이제조

손의 문답은 높고 높고 신하 놀이 내모음을
빛최시며 네모음을 빛최시리라 왕세손
이 존현각의 안낫오셔령하야골으샤디
전피톨승지친히내게전하라하시니좌승
치셔호쉬우러뵈들어나오니 왕세손이
뵈와보오사고호쉬디려날너골으샤디
상피이러트시근축하서니내뵈우러러
법바들도눈오직실심으로뵈봉행하기에
이시니일도뵈우러러알외라호쉬복명
하나 상이골으샤디답하배극히도코

도흐니내모음이아름답고잇분지라날노
호여곰디답호야도이에서더치못호라라
호시다

신등이근안다형호느레느요순형호새
부터이셔부터롤인호야의의법이이러
시니넛쩍의호호종대왕새예선정신송
시렬이넛태조참결_{호참결은}호_{판말은}호_정호_{말을}
인증호야빠고호니이새의호호외출취
정성호시되선정말이오히려이러호니
호를며태질의년령이며또호를며병환

朝鮮文獻備考

卷一百一十一

이 침표호신회랴우리
연태왕이대질
의권근호신년령으로버
주어히버음으
로기리저섭중에게서
담휘왕닉호심
으로정신이싸라나으시며
못호심은제
신의우러러보논배
오팔방의훈가지로
아논배너우리
연해총덕의동호삼과
저이의존호심으로버
정소를더령호심
이외늘으시매
순이섭호심
고호시니
진실모이던디
의견위어과
지아니호표
크빅세를기
드려의혹
지야닐
재라대
신의

위에잇는재비록고스물의거흐야우호
로청호야도가취놀이제이와상반호야
십월노부터버음으로주니호하교와다
못전석의셔하교호신빛공스물못
동궁씨드리며정스물하단점호시며장
계를품청호라호신성명이몇번이나
느렸는노적은덕로말의암아낫타나매
나리러명통호시고급거치아내샤고
성의틀여러외신재지극호사되홀노아
랫사름이일향되거홀즉밋잠내모는이

로더브러의논치아니사고 성심의결
단하시니이에 대성인의고심이소박
년종샤를위하야념녀하신밭재지쿠
히집고또머르신줄을우러러볼거시오
이씨의수세의어려움을또호가히싱각
하리로다희라디령이네부터만코이새
의당하야는수세더욱하로도늦츠지못
할줄을어니사름이아지못하리오마는
저청년하모든역절도또하사름이라구
비니의로체결하야반드시적하하고요

동호후의말고져호는재이어인연피노
의새의 상휘침면호샤돌노달르시고
날노못호시니척년호모든역적이스이
롤타그옥이롱권호야스스로니로더오
직이새를가히일치못호리라호되우리
던해신성호시고영명호샤그역적들
의모음을외집호게호신지오래고의리
의큰곳을볼히보샤척나들의권쓰는줄
을김히의위호시고더욱착호고간투호
며연적파충신을분별호기에엄호시니

비록우리 면하의 좀덕항샤드러나지
아니심으로도희미항되나타나정성을
그리오지 못함재스스로모든역적의엇
보는배되고또모든역적이머리를곰초
고그림저를숨겨종중작간항논허다함
죄악이하늘을가히속이고세상을가히
속여도가히호발도속이지못함밭자는
오직 동궁이시니이런고로저무리
동궁씩처음스기함은저희일의해로올
가함이오중간의저희함은저희간상을

보실가함이오각남은형제이덕일즉위
뒤함을씩은자최점점나프스소로보
전할씩더욱깊은즉우호로평박함은계
파더욱급함야못참내즉미로번의동궁
은후으로뒤적이된재이진실노스세의반드
을오시닐을배니슬프다저홍역의무리쳐음
의빅게로 더형아니함신전의저희함
다가성명이우희계성으로힘남어계
교를발씩지못함속감히번복할계교를
이의상더형함오신후의내니슬프다요

경의삼기미비록심장이잇다흐나
성조지턴지령이저희무리게무어솔져
브러겨시리오회라가히이귀여다스
리

을묘에 하령호오셔가주셔박상집을하의
금부추문호시다

전월이십일입 시의상잡이소판으로써
괴소호기를전쥬호되상집의일귀가온대
상교증 황형하교와

세제가호부조하
호호선부조하

과 밋닌한의세가지를곳호야아르실일이

아니란말을다그루지아니흔지라 왕세

손이하령하샤상집의일기롤드려넘은후

의모든소판드려 못조오신대그소판성

정진이티담하야글오되신이하번한님의

로그날입 시하니 성피곤추하시고쇼

복하시되대신이 동궁이세가지를굿하

야알으실일이아니라하노말노배앙되하

니신은드렸습니이다 하령하야글하샤

되그날 전표중에글하샤되세제가하나

좌위가하나하신 황형의말씀을내이새

사지외오노라하시내내크세의 시츄하
야이 하교를친히드조와시내상집이몸
이귀주판이되여악튜응신 하교를임의
데르쓰지아나하네극히그르다하시고인
하야곳쳐버드리라하시내상집이츄탁하
고곳치지아나하야십여초의너르내이에
팅의정김상철이상집을나문하기를청하
네 하하시다

갑조에심상운을츄국하야절도의형비하시

처음에 청평공주의 아들 심정보의 양조소
순은 본니 신축년 역적 익창의 손지라 소순
이 또 조식이 업서 상운의 아버지 진을 양조
하니 상운이 재아인 익운으로 더 브러련 생
이 요사 하야 클은 하되 형실이 업난지라 밋
익운이 급제 하매 조정의 논이 익창의 손지
라 하야 막아 오래 벼슬을 시키지 아니 하니
상운의 무리 하 하야 정보의 외손 김상복으
로 하야 곱 그 새 정승의 게 그 새 정승은 청출
하야 소순을 파양 하 고 일진의 상 두로 벼심

정보를 닛게 하니 세에 소논이 분은 하야
번하 되상은 과익운이 스스로 제몸을 위하
야 이미 죽은 두한 아비로 하여곰 다 그 아비
를 밧고 앓다 하니 그 처찬 선 송명흠이 조
정의 앓다 가 이 말 노상 소하니 일 노 말 미 암
아 상은 과 익 운 이 사 름 의 류 의 참 예 처 웃 호
제 라 우 라 저 어 녀 상 운 이 또 급 제 하니 겹 교
할 배 업 서 드 디 여 몸 을 기 우 러 후 겸 을 섬 거
코 또 흥 낙 임 을 체 걸 하 야 그 소 싱 벗 을 삼 앓
터 니 아 에 니 르 러 상 휘 점 점 더 하 시 고

대리의논이 오래결단치 못하엿다 너 밋서
명선의상소드런지수일만의 디리하라
하신명이 나리나 흥도들이 크게 분에하
야 온오디이 논공판이셔 명선을 턱동하엿
다하고 드디어 상운을모투하야 조건중참
소란말과척나란말아용의 교말하고 못참
벼공판을지척하야 온실슈를인증하알이
파측하나 아씨의후침의모진한을써방
조하거심하야 처궁을위핍하야닐은지
아닐배업스니 좌우전회후침파닌한의사

름이 아닌 재업스되 홀노 궁관 흥국 영동이
 일심으로 보호호야 위티 홀거슬 잡아 죽거
 로즐 거가지아니 호니 흉도들이 근장 위위
 호야 버닐오던 궁관을 제 거치아니 근제 거
 피못 참내가 히형치 못호리 라 호야 궁관 제
 거 홀백을 백가저로 호터니 이에 밋쳐는셔
 명셔 위연삼에 더 답 홀말을 듯고 위셔 명선
 시에 김상복이 언근을 두려 피라 호니 나
 표 호오 시 더 평이 어 더 셔 드렸 노 다 호니
 명 선이 골오 더 궁관 의 계 두 렷 소 오 너 선 동
 궁 거오 셔 일노 친 소 호 락 신 다 호 오 너 선 의 동
 상 의 노 궁 간 을 제 거 호 여 호 제 궁 을 위 품 호

라하고 상상 소에 은 실 슈
란 말을 하였나니라 드드여닐오디몬저

공관을제거하여 배령정하라하신 성
명을번복함이정히이때라하고안파박그
로비포함이이의일매상운의상세났는지
라상세들매왕세손이곧은샤뒤내박치
지아니호상소를누듯지못하여시리오홀
노공노뿐드러시라마는상운이감히온실
슈란말을하니이논화심이라상운의모음
은길에사름도아는배라하신평조곧은샤
더상운의이상셔하기는그반드시주호

재이실거시니 상운이 형세잇는 잡의든니
를가히알지라 상운이 흥시힘으로 배발신
흐야시니 상운이 감히척니란말을흐랴흐
사고이우고제대신을 부르샤 하령흐
야흔으샤뒤 상회작년부터호시맨내
체음태식호재언마오셔명선의상쇠단단
호혈심인즉상운의상셔는일이충역에관
계호니가히어렘프시미봉홀재아니라
슈슈호는즈음에한일과명치못호즉맛당
이엇더호리오을축케판중슈부스김양탁

등이 상운의 상셔한일을알외니 상이 명
하셔 상운의 상셔를드리라 하셔 넓기실시
당이란 조목에 이르러는 상이 곧은 샤디
상운은 역적의 손조로셔 상셔가 온대 감하
당무구 일흥을 버려버시니 명하셔 형쥬하
고 후산도 천극하라 하시고 꽃처의 금부를
명하셔 국문호후의 상운의 형제를 다 후
산도의 영위세인하라 하시다

을축에 상이 명하셔 찬비이하를 소죄지
단하라 하시다 ○ 집의 신응현이 상셔하야 흥

닌한을보림히범으로쓰자흐니 좃지아니흐
시다

잇씨에소헌부와소간원과홍문판의계
소흐야닌한을삭탈판직흐고문외출송을
청흐는시다만세가지를곳흐야알으실말아
아니란말이만만무엄함으로죄목을흐되
홀노응현이상셔흐야글오되닌한이폐부
지친에이셔감히불만흐모임을내여세가
지를곳흐야알으실일이아니란말노배정
신흐야알외니 더해부야흐로충년의계

샤쭈히알은사지못흐리라홍이니잇가후
문이일우지못흐야밋쳐알은사지못흐리
라홍이니잇가국의일이아이에
하의알은실배아니라홍이니잇가
알은사지못흐시면취맛당히알니잇고그
모음과자최를공구흐면진실노촉낭치못
홀지라또닐오디닌한이형세노부형을자
뢰흐고권은인쥬를기우리쳐위엄파세염
의더은노바의갑하여그릇지못흐야출하
리
국가에죄를아들저언정감히권문을

어귀로치지 못하야 오히려난만어훈가지
 로도라가지 못홀가저허하니일노버
 죄명_호샤디라전교로쓰라_호시나_호상신이
이손을저어말_니즉승디_승대_감하_감
 쓰_적못_호고_고대_적지_신의_명지_신은_상소
 를_곳조_오신_즉도_현은_도현_은은_승문_이라
 날_오고_원임_아또_훈감_히화_동하_나
_이일_노버_본즉_승디_는다_만상_신만_잇는_줄
 을_알고_국개_잇는_줄은_아지_못하_며도_현
 파_다못_원임_이또_호상_신이_잇는_줄만_알고

을 국가 잇는 줄은 아지 못하야 의라 회석하
고 인심이 함낙하야 징도 흠이 흥치 못하
고 공논이 덩치 못하야 삼양은 의니 르러 극하
사라 하심을 금초와 품고 말과 뜻이 파측하
야 와 굴을 새치지 못하 고 근제 서리여 미치
여 시너 다 른 날 근심을 엿지 이 귀여 날으리
잇가 청권대닌 한을 복이 법을 쓰고 붓 좃고
영호하는 자를 차례로서 치하 영지인 다하
영호하 허치 아니하 시고 정묘에 쓰상소하야
오 말하니 쓰하 허치 아니하 시다 영호하 오

오십이년병신정월갑술에 하령호오샤윤
양후를히남에명비호시다

슈찬너병외상소호야닐오디양휘간사호
고아당호야참아바로보지못홀지라인가

의후경의출입호야시논을슈장호야일국

이환전호노십목을기리오기어려온즉스

수로청의에비릴줄을알고이제동뉴를기

만이보호호려호노말을지어버니만일을

늘조정외두면엇더호귀관이어느곳의날

줄을야지못호니책이병외호노법을

병외
변의

덕대할보내
단말이라
베퍼조야로하여
곰쇼인을쓰

지아니호는
즐을통연이
알게호쇼
셔상세
들매
왕세손이
골이샤
디양휘
일즉
옥당
망들기
로일
닐곰
번을
호되
낙
점을
무르
옵지
못호
이니
에
감
히
척
나
를
인
연
호
야
내
게
청
탁
호
니
내
근
째
에
이
의
양
후
의
본
말
을
아
랏
노
라
호
시
고
드
디
여
비
답
호
야
골
이
샤
디
은
양
우
의
니
를
즐
기
문
이
의
옥
당
근
틈
호
시
던
째
에
알
아
시
니
청
호
는
바
는
의
시
호
노
라

신등이 근안충지지시매의 새쫓는모음
으로 비양후를 성죄호즉그죄목이엇지
다만간사타홀뿐아리오우당의 상셰말
을다호지아니호야적은일만닐은재엇
지그러호곡절이업소리오슬프다잇셰
에닌한과후검을아직잇쳐복이형벌을
쓰지못호즉양후의무근지죄를바로베
품은새가치아니호교아직은양호야배
기도로고자호즉권관을우익호야호호
씨날노금호야 종국에근심이긋칠배

업스니충분호의논이오직양후를년곡

년곡은셔을에업시호기로배다형히녀

기니엇지성죄호기를다못함을도라보

리오우당의상셔를범연이보면불파군

지쇼인의정티를극친거시로덕조셔

이보면의연이츄츄에난신을징토호야

시니이후에이틀보는재가히아지아니

치못할거시니라

삼월병조에영종대왕이경희궁집경당에

승하하시니신소에상이승정문의소

위하시고 고 모반사하시다

신등이 근안황천과 조종이 우리 국가
를 권우하사 성인을 내사 비창을 맞
지시니 험한 일을 지내시고 어려온 일을
볼으셔 예력이 더욱 빛나시고 모임을
응축이 고성품을 참으시사 큰소임을 이
예나리오시니 보야호로크 위를 닛주
오실새 희후한 무리들이 고만이 옛보아
화에 괴틀이 측낭치 못하니 이전스 괴를
무로보아 도지극히 위턱롭고 어려움이

이 배고호제업논지라 그리호나소대문
을닷지아니호고중외안연호야빅성은
다만여상지통을알고 종새터옥태산
파반석고호형세곳으니 이엇진연괴노
으직우리 선대왕이지극히조위호시
고지극히북으신덕으로벼이에 옥휘
침면호신각온대긴도모롤싱각호샤급
히대척을벌단호샤정사를디형호샤
슈위광명호심으르일즉이인심을딩호
고간약호새를문져새거역적의무리로

호여곰못참내그계교를발뵈지못호게
호시니 國개오늘날이심이어늘거시
우리의 甸하의선렬은나으심과 선대
왕의선소호신모훈이아니시며호공판
의 적공를보익호고 沙적을보손호
공이엇지더욱빛나지아나리오오직저
형정을저희호고 동공을위동호던
역적이이에너르러더욱그죄를도망호
배업스니슬프다.통분함을가히이과랴
갑신에홍문판은교호국영의토락 비승정원

동부승디하시다

선등이근안으직하놀여총명호신님군
을내샤어에나라흘다소리시애또호호
들돛는사람이이셔좌우호야배석로기
디리고호가지로일우느니그사람이반
두신공충호고정직호며침릴호고귀형
호야족호대소를맛기고등임을부탁호
염속호고또반두시호여곰위튀호을지
내고어려온디쳐호야그지혜를터으며
그슈고를나타내며그니호그로슬투별

이알게 하니 대개 명주와 냉신의 상등함
어네로부터 이러할지라 오회라져 즈음
석우리 언해져 궁의게 실썩고 근위함
고급업흔형세 잇더함 노져 근홍함이 위
복을 절동함고 부언을 슈장함 양맛그로
버일세를 의혹게 함며 더만호길로 통함
고형세를 빙자함 야안호로 버뢰단으로
위험함 야궁 판을 던제 흘새와 령형을
번복함게 피비 짐이 이익오라 차례 본장
춧발빌지라 동궁의 침식을 편치 못함

심어아지못게라그몇들이노슬프다엇
지참아닐으리오브야흐로그씨의좌우
와전후의역당이아니니업스되그일심
으로보호호야함몸으로버 국본의안
위를미인져홀노국영호사름이라그려
나그괴틀을응접하고스변을쳐치홀즈
음의이름가히버급히못홀거시오또가
히버느즉이못홀리니급히호즉그변을
격발호기쉽고느즉이호즉그괴틀을일
기쉬은지라이예경호고보호호야

우흐로말슴과귀식의도리나심을경계
 하며배도회호실도리물극진이호고아
 래로얼골과그림자의꿈최언더를슬퍼
 베풀음을엇는형세를막으며만금으로배
 그죽이기틀구호되호발을움죽이지아
 니호고전석의날은샤호여곰가라호
 시되일절을더욱곳게호야그붓들고쥬
 선호논바방낙이갈수록더욱심밀호야
 미참내화란을비아호로비롯는더막조
 르고흥모를비로소밍얼호는더색거우

리소빅년홍귀를거라곳게하니그귀특
지아니하라대개그아는배 나라히오
그자본배의리라또귀식과지유를겸
야능히치극히어려온새를당하야비상
한일을판두하니그가히공존 사적한
사름이라닐을지라잇새를당하야흥도
돌서치치못하고 나라형세보야흐로
외로운지라특별이근밀호벼슬에두사
더욱심부의의탁을오로지함심이니엇
지함갓그몸을영화롭게함심이리오

병신에 대신과 삼시청. 덕후야. 덕후겸. 모조
의 죄를 셤니다. 사리물. 청후대. 명후. 사후. 겸
을. 경. 원. 부. 에. 찬. 비. 후. 시. 다.

이날대. 소. 헌. 이. 차. 조. 를. 을. 려. 곧. 오. 되. 덕. 후. 겸.
은. 턴. 징. 투. 쫓. 이. 라. 어. 려. 실. 적. 부터. 간. 소. 후. 구.

기. 이. 의. 뉘. 너. 이. 고. 조. 라. 매. 화. 심. 이. 점. 점. 동. 후.

야. 성. 사. 성사는 성이며, 와사. 직. 위. 취. 의. 안.

라. 신. 아. 나. 라. 형. 세. 을. 방. 사. 할. 디. 박. 인. 말.
로. 의. 지. 후. 고. 심. 엄. 후. 뒤. 출. 몰. 후. 야. 일. 상. 는.

재. 기. 만. 이. 상. 의. 를. 엿. 보. 고. 은. 총. 을. 맛. 고. 조.

적. 을. 합. 제. 후. 야. 경. 영. 후. 는. 밧. 재. 기. 만. 이. 국.

병을음기라하고 장상을동라하고야우익을
삼고정소를슈장하고야귀세를비포하고야빈
소소이예영화롭고물음이판단하고연슬
즈음의 벧말에사름을의위호면뜻의녀의
치고소랑호전무름회안치단말이
라죽이고차로미논호여그소행을보면호
일도범분치아니미업고호로도나라홀프
지아니미업스니턴하에엇지이러호져이
시리오그리나이논제게오히려적은죄라
또호공현극지호죄악이이셔국인이다분
호야호가지로사지아니치를밍세호니오

적우리 선대왕조손이 서로의 지함 단하
피가히 배신안을 감동함 리니 왕망조소와
스마의 환은의 믿음 이 잇논 재아닌 즉취연
경원디치아니 함 리오만은 감히 시괴함 고
혐의 함을 싸코 상히 분함 고 원망 함을 품어
거만 함 터되 소석에 나타나고 주장함 논말
노방조히 속이 고의 후게 함 야 그의 동함 논
자최와 위팍함 논 형세 비록 넷태쿠와 봉회
라도 이에 서지나지아닌 지라 다만 우리
선대왕이 비최심 이 일월을 시함 시고 진영함

국인이훈가지로원슈하는바재여늘길이
대컬가은대이셔궁에나가기롤드물게
하니그닌외로서로선동하는자최롤작연
히가히볼거시라도금하여정디이전파다
르그의심하고식의힘이점점심하니그
만이색로발비아장춧엇더흔변피를지어
낼줄을아지못하니넋쥬공이감히판과
속의게법을굽피지못하여시니늘며
년해우호로종묘를밧드시고아래로
도로거느리시나엇지스스로가변야이

오샤 후환란을 막는디 소홀함 오시리잇가
또 후즉일에 내쳐일즉 감쳐함 심을원함
이다이에 승정원 파스 간원파 홍문판이서
로니어 계소함 고차조함 되 상이다 좃
지아니함 시너 대신파 삼서형 디함야알
외도이느헌신의말뿐아니라이에 일국공
공지논이니 이제야 비로소나기 또호느스
은지라 상이하 교함야 플으샤 디당츠에
좃기를앗기문내 뜻이이시너 공묵 공묵은
삼변안
이런말 숨이라 함새에 여러말이 어러오나 등후검

을원찬호고옹주논이의출테호야시니이
제가히의논할거시업도다호시니홍문판
이또차즈를을녀듯호되좃지아니호시다
소월무선에 명호샤홍닌한을려산부에찬
비호시다

삼시년호야닌한원찬호기를청호고대신
이또빅판을거느리고명청호더나이에너
르러논 하교호야골인샤되오회라대
행대왕이환회미류호샤형섭호심이여려
호시니작동의니르러논조정일과나라일

의니 른즉진실도맛당이힘을다하야잡기
를싱각하야버릿글의잡기를본바듬즉하
거늘이에도로혀탐권낙세하기로버묘계
를삼고권총플기로버능소를삼아곳하야
아름즉지아니탄말노베용이히발구하고
오히려두려온줄을야지못하야셔명션양
쇠나매도로혀덕적할게교를내야저하하
고취웃는도리를싱각지아나하니술포다
비특경인간일노버닐너도근득실을근심
하느배책유의안되하기_와 책유호책경의
아들이나제아

구
위 권을 아슬려야 거죽 띄보는 채고나
약 병드러다야 제아 뷔 정승을 골고 뒤신
라하 니 다름이 업스니 뼈근부와 형테스이에
쳐소훈배이 아훈즉 다른일이 아오히려엇
지나르러 오그명의를 바로하느도리에맛
당이 엄히쳐분홀지니 판부소 흥닌한을위
선삭직하고려산부에 찬비하다
우월산미에 명하샤 텡후검을그 비소의천
극하다

삼소의 청음음을 좃츠심이라 그후에 간신아
또상소하야 날오디 후검이셔 명선상소후

에 사람의 개편지호야 베풀되 태구와 봉휘
다시 낫다 호고 또 마만이 요피로 온상운을
지주호야 흉소를 꾸며 내여 지의 음참호고
상운이 추국호던 날에 감히 또 동인종에 팔
을 썸내고 대연호야 곧 오던 엿지 저군이
사람을 남간의 가도 눈일이 이시리 호니
그장심과 역절이 이어 더욱 드러나 시니
를 버리지 아니호면 난적을 징계할 필히 업
소오리이다 좃지 아니호시다
누월계회에 윤약연을 찬국호시다

약연이슈찬으로써상소하야토역으로일
흥하되상소기온대셔견의거괴를죽이
고협종을다소리지아니탄말을인증하야
골오디션후태례본디그러타하니대개거
괴니후검이롤닐은고협종은닌한을닐음
이오또골오디나라편사름이또하니롤보
고의를닛는다하니대더닌한이로나라편
사랑이라브음이라또골오디성명은정
을혜아려죄을정하시고제신은자최롤잡
아모음을척망한다하니대개그자최는죄

잇는듯흐, 되정인즉가히용셔흐, 암즉다닐
음이오소골오디, 아당흐, 논리도와영함하,
논풍속이리셰의혹면치, 못홀재라흐, 나대
개로역흐, 논대동지논으로배아당흐, 괴영
합흐, 기로도라보냄이오, 그삿하다만도비
로배난한와감죄를청흐, 고그용인하, 기를
의논하, 논말에니근, 러노골오디, 얼끝이빗
나고알을치례하, 나, 니로배가히깃부다말
오시며, 혼지조와, 혼능으로배가히부림스
다말으시고, 반드시, 국인이다, 골오디, 가히

범즉 다훈후에일과 권으로버맛지샤나라
홀드러청종호신즉우희취샤를가부야이
흙이업고아리로식기호는모음이업다호
야장두호만노지의파측호자라상외들매
상이약연의벼솔을태초호시고불너못
조오시되나라편사름은누를닐음이노약
연이글오디닌한이응당형정을며희호모
음이업니고로나라편사름이라일너습는
이다 상이글오샤디닌한으로다만도비
만감늘흙은엇진뜻이노약연이글오디후

검이이피쉬오닌한은이나라편사름인호
로신은그죄경흐다닐음이니이다 상이
글오샤되자최를잡아모음을다소리단말
은엇지닐음이노닌한의역절이북이드러
나시니엇지다만모음만다스릴새름이리
오약연이능히디답지못흐거늘 상이글
오샤되닌한이감히대척을터희흐니그죄
엇터흐판디후검에서경흐다닐음은엇지
노약연이글오디닌한은불과망발이오나
곳흐야갑히다스리지아닐거사니이다

상인 줄은 사디고려면닌한을 다만가히도
비엔그치라약연이성귀하야디합하야플
오디신은홍닌한의죄되는줄을야지못
오니그던해반드사쳐분고셔하차거든
소인산후를기드려보아아모리나하심이
무방하이다상이하표하야골은사디췌
췌지의에호역이또호역적이라하나약연
의상쇠상운으로더브러머리를밧과며는
출밧고고연중에알원말이열절이불이드
러나시나약연을맛당이친국홀거시라왕

부로호여곰나슈호라좌승다홍국영이플
오던친국소면이진광히등대호니호물
머알초지정을당호야맛당이더욱삼가올
거시오니친국호오실명을한칭호삼
을원호니이다양이골야샤더약연야상
소호야닌한을영호호야버시험흔게표로
삼으니이름엄히구획지아니호면양니근
심은엇지가히추낭호리오국영이골오던
셔전의늘으디공경호며공경호야오직형
벌을삼가라호야소오디갑하호혜아리심

을터 호읍쇼셔 상이골은 사디 처음의 천
국호야 득정코져 호얏터니 이제알외는말
을드르니 승디의 돕는말을엇지 가히 좃자
아니 호리 호시 고드디 여의금부를 명
호샤츠후국호얏터니 이튼날 전교호야골
은 사디약연의역절이심상치아니 호고호
어제밤의그문셔를보니 단션와정절아이
의가히닐을거시 업스니 엇지 가히츠후국에
굿치리 호호시 고인 호야 명호샤 친국호
시다 호상이금상문에 단좌호시 고약연

을친국호실서못조오시되닌한을바후의

천

주례의예동가치의논호법의나각권의
향은조론의논호야경히행만말이라으

로배참아소죄로처단차못호나집법호는

재감히용셔호는의논을쥬장호리오인

산후의보아호자함은너희당역호을그가

히덜호랴약현이공소호되닌한후점의죄

를경등을모로논고르분변호야알됨이잇

는이다못조오시되네아조비게호편시의

태연이논박호차로써충심을폭빅지못호

얏다호나태연이엇시충심이아시련태연

을논박호재엇지쇼인이되느뇨공소호도
편지의이의잡혀시너다시가히알월배업
느이다못조오시되네상소의영합호단말
들이이시너토역호는대동지논을네감히
은연이영합호는더로도라보내는다반드
시지회호재이시리니그지고호라공소호
되조전으로절친호재못홍상간너성운이
니신이일즉상간드려못조오되네오래출
방을못하니요사이혹견과호일이잇느냐
상간이닐오되요사이사름쓰기논의드논

차는 쓰고 눈의 뜨지 아니하는 차는 쓰지 아
 니하고, 머주 상으로 처분하는 신즉 아래 사
 람의 상의를 좃차 영합한다 하더이다 못주
 오시 되 쓰는 재뉘라 하더 노공 소하 되 흥국
 영등이라 하더이다 못주 오시 되 생명 선상
 소는 이 형정대척이니 이를 치는 자도 오히
 려 역적이 어든 하를며 흥국 영은 국개고 위
 할스음을 당하야 책니와 근습들이 다 이 심
 이이 시되 국가를 보호하는 차는 홀노 흥국
 영은 사람이라 책슈로 하날을 밧드려 공이

샤직의잇는쟈여늘너희무리반드시장
살코져흐니그뜻이어더잇노쇼이셔명선
모히흐려흐는일노흐가지니홍국영죽이
고져흐는사룸을일일히직고흐라공소하
되홍국영죽이고져흐는쟈는곳홍상간니
성운홍찬히오상간의게드른즉민홍별니
경빈이또호홍국영의권뿐다닐으터이다
못조오시더상간의홍별경빈으로더브러
상시의논이엇더흐며별노더브러슈작을
씨의그말이엇더흐더노공소하되상간이

날이디홍국영이을치아닌곳어만타흐는
 고로신이디답흐되경신옥소척의소호을
 치아닌재만흐되유공호사름은맛당의적
 은일을활약호염즉다호즉상간의일이디
 호국영이죄상의그르시아니니민망의아
 지못흐다흐더이다못조오시던언어간의
 경신일이어이낫노호령경이편논의관계
 호일이아니어놀네경신일노베늘이니경
 정일도소호편논니나공소호되상간어호
 국영을죽이고저하노모음이잇기의신은

옛는고로파연닌한의게소정이이시니일
노배지만한는이다 전디라닌한의죄는
실노국인의아는배로되너법을쓰지아닌
밧자는특별이불인한는뜻이어늘몸이북
연호신지되야닌한의죄를아지못한노라
한는재이의당역한는취어늘한를여벼슬
이삼소의잇고의목욕의등호재그죄를일
크고법을결단한는배더욱조별할거시어
늘약연의상죄감히도비로배노당하고또
입시의감히파측한말노방수히주디한야

듯흐른시하고그문셔쥬잡한바에포장호
화심파비포호흥외막옹이서놀하고몸의
소오름이일물씨듯지못하니이를못지아
니호면엇더호화괴기만호가온디잇는줄
을아지못홀지라이편지무비음참호야태
연상간의무리로더브러교결하고쥬무호
자최탄노무여호야후글오디태연의충심
을꼭빅지못하니도라보와가히구홀도리
업다하고또배태연논박호자를쇼인이라
닐으며또배호되세되위험타호야기타망

축후말이이귀여귀록지못홀지라특별이
명후야친국후야몬져탑전의알원바후언
을못고버거닌한의나라편사름이된바와
토역후논의논이영합이되논바와사름은
논거시나라홀드러형종후다후논바를무
르니제바로썩리와단셔로개개히공소후
니옥소의더옥층가흙과제적의태려로잡
힘이다약연의공소로말미암은지라이제
약연은곳후도의후견과호시라지히무
리비전대경동아이사다지히의무리를또

훈살녀신즉이런뉴야엇지족히갑히다스
리리오제벼옥당이닌한의힘으로나시니
실노감턱하야갑흘무음이이심으로공수
하니일노보건대전후죄범이불파향곡의
미천^한휘벼슬을도모홀게교로나미니진
실노닐온바비뵤라족히최망홀거시업고
또약연의초식아니면이런흉적을엇지즉
시다소리리오이덕^속초형신^하야시니약
연을절^르도의감수^하야등비^하라진도군금
갑도의형비^하니낭식계수^하야다시국

문하야 쾌히 왕법을 밝음을 청할대 불은
하시니 약연이 길히 셔 주다

신등이 근안 약연이 태연의 지친과 상간
의 소우로 버흥 널 성운으로 더브러 창지
서로 나 이 여상간의 번복하랴 하느 썬들
약연이 좃차 주무하 고 흥 널의 무 상하
기말을 약연이 더브러 화응하 며 흥 널 상
간의 머리를 모화의 논하느 재 곳 혼공 판
을 장해 하랴 하 이 어 널 약연이 또 호 서 가
되어 부언을 서로 붓쳐 내고 예 덕을 휘

방흥야망유괴극흥재대개 쟈군을협
박흥고공판을참소흥논뜻이어늘 성
감이몬져정상을슬피샤간사흥씩감히
발되지못흥즉이에 즉위흥신처음의
훈양소를나와지의파측흥니그정신의
모도인바논전혀두어 귀장두흥말의이
셔반드시보호흥논사롬을제거흥야
성공을위티케흥려흥니그계피진실노
간교흥고독흥지라태연을소개흥야후
검의게셋을보내고척분을안연흥야번

한 의 게 사 피 물 리 즈 그 천 거 함 을 빙 쟈 함
야 외 람 이 우 당 을 함 니 은 혜 를 먹 음 고 당
능 에 죽 으 려 함 눈 쫓 이 이 에 더 욱 곳 어 닌
한 이 나 라 편 사 름 어 라 함 을 상 소 예 일 쟈
고 태 연 이 충 심 이 잇 다 함 을 편 지 에 올 너
며 밋 전 석 의 무 르 시 매 초 귀 불 연 함 야
이 에 감 히 곧 오 디 흥 닌 한 의 죄 됨 을 신 은
아 지 못 함 니 쯔 상 으 로 부 디 치 쟈 쟈
함 신 즉 인 산 후 를 기 드 려 보 아 아 모 리
나 함 소 셔 함 니 몸 이 삼 소 의 이 셔 일 함 을

토연한논이라하고 그보와한쇼셔
한논말과아모리나한쇼셔말을고금쇼
귀에도뜻지못할배니이당히그모임을
노인도가히알지라죄후검닌한이의셔
큰이업거늘극진이분별하고의역적을
징토한기의셔통함이업거늘영합으로
도라보내며경신옥소를감히은날에
비기고태연의논박함을쇼인이라하여
출하리님군을비반한되도라갈지언
정스스로당연한죄를들게너지니인

심의를함노후이이에니르렀노고그러나

일노말의암아뿌리비로소드러나고와

쿨이이에새여저니막논우의숫티도망

치못하고 하우시구정을지으니권선이

도올은순의형벌의나가니 소홍중호동

이 군위래히퍼이고 방명이길이곳

은즉실노 성인의지혜미리간명을색

금을말미암음이니엇지아름답지아니

리오슬프다약연이제한아빅손조로배

신축년의죽은무 흥당의붓쫓태몸이큰

죄에 빠지니 날은 바나라의 억신이 오집
의 패지라 가히 이거여 다 소리랴

갑주에 흉상간을 국문하시니 결안경 폐하다
상간드려 못조오시던 네당을 모도와 역적
의 논을 비쳐 버던 일이 이막약연의 초소에
드러나 시니 토역하신대 동지 논을 날오던
영합한다 하고 또 네원국훈이 득할 약용인
하느말 노배 두 무히 의논하시니 그다직
고하라 상간이 공소하되 약연이와 보을새
에 신이 오라 베풀 솔업는 줄 노배의 후하야 못

좁는고로신어판연슈작호말이잇습고어
태간예후셔연말삼판궁판말을호엇습
이다못조오시터약연이작일에네영합
단말과용인호논말노배분명이남공호야
시니두가지일을직고호라공수호되로역
호논의논을엇지영합한다호엇소오며용
인호논일은근니쓰시논중에홍국영잇
니파호드호논지라용인호논도리별나쓰미
을커늘즈금은편벽도이쓰서가에슈작호
말이잇나이다못조오시터약연이닐으디

네 흥녘이와 경빈이로더 브러 흥국영을죽
일게교를흥, 더라흥, 고또 경신옥소말을흥,
엇다흥, 니그새말을주셔히고흥,라공소흥,
되신의 흥녘노더 브러 과연 흥국영의 시비
를흥, 엇습고 경빈이 또 흥닐오디 흥국영이
셔 연애셔 흥, 논말이안타 흥, 입고셔 명선
의 상소말을 약연으로더 브러 슈착 흥, 을새
에과 연경신옥소말을흥, 엇는이다 상간이
약연으로더 브러 면질흥, 니 상간이 곧오디
네셔 명선의 일노버 경신옥소에비기차아

니흐앗논다약연이골오디시비판누기에
 파연닐노더브러슈작흐엇노라상간이골
 오다버언제흥녘과경반으로더브러흥국
 영숙이차흐논의논을흐더냐약연이골오
 디네엇지죽이고져흐논모음파원국흐논
 말을아니흐엇논다다시상간드러못소오
 시디오닐날나라의척나롤미들커시업슨
 지라셔명션의상쇠중샤에게표를위흐
 야신즉동치아닌줄의아나로되척슈로버
 하늘을बाट드러공어코샤직에잇논흥국영

의게비호야는오히려완호지라국개평안
호고위티호음이호흡수이에이실제종시를
보호호자논호를노호한사름이어늘네호널파
경빈비로더브러반드시죽이고져호기는
무슴뜻고공수호되호국영이신의집으로
더브러형원이잇습거에신이엇지도호뜻
어잇소오며호널이또호호국영파도치아
니호은고로파연호널의무리로더브러의
논호일이잇는이다상간이경빈으로더브
러면질호니상간이얼오디호국영등이강

연에서 말만 하단 말을 네 아니 하였노
다 경빈이 곧 오더 버언 제이 말을 하였노
전턴 가을에 네와 흥국영의 말을 하였노
내 파연드러 노라 다 사양간드려 못 오시
더 내 춘궁에 이 실새 궁 관으로 더 브러 강
는 말 벗과 무승슈작이 잇관대 너 희무리상
하의 슈작이 심히 만타 호고 벗 벗티 가 탕설
하야 궁춤 서지 흘너 드러 오너 버고 피롭기
를 어귀지 못하야 궁 관으로 하여 품을 너 가
고져 하기에 이르러 잇는 자라 당초에 김동슈

를 더 접하던 일은 문득 호변창상

창상은 세상이 변하

안 안이 되었는지라 우호로 위호팀이
시니 너는 역적편사롭고 내야 직가차
호주스스로 배호되지 위잇노라 호야
샷겨서 탕설호야 너희 무리공판으로
이실샤는 나가 포장호고 다른공판
이실샤는 허다호부언을 주출호니
이엇지역적의 무음이아니리오
상간이공소호되셔연에말만탄
말은파연경변으로더브러슈작호
였노이다 못조오시던닌한이네
집을 위호야루루

히알외니 그난만츄무호던정상은내공
의이실썩에이미술토록드릿논지라닌한
이네아비로배정승을호이고셔명선파및
궁판의국가위호는사름을다모라내여호
그물노업시호게교를호고로 선대왕이
비록권근호신승에게신세나문성좌쥬로
버하교호시니아는아작의논치알고네
아비니게홍을조백_{의게홍은천위라}호야돈이
안냥을회회호고도고만여후검을사피여
그인승을바다시니아엇지머컬을통호는

내 피야 내 리 오공 스 흐 되 요 소 이 일 전 에 엇
진 난 한 의 이 런 줄 을 아 라 사 피 지 야 니 흐 리
엇 가 난 한 의 무 옴 에 신 의 아 비 로 배 후 가 우
지 되 이 실 가 흐 는 고 로 정 승 을 흐 이 고 저 흐
엇 습 나 이 다 계 흥 어 회 회 흐 일 은 의 리 흐 입
고 신 이 병 든 세 에 후 침 이 인 슴 을 보 내 엇 습
기 의 신 이 파 연 바 다 먹 엇 나 이 다 못 즈 오 시
딘 이 편 지 는 상 되 네 아 비 게 흐 편 지 라 네 집
이 역 적 의 괴 슈 되 엇 는 고 로 차 마 입 에 내 지
못 할 알 노 배 네 아 비 게 이 편 지 를 흐 엇 거 늘

네아비이의답장_하였는지라이의일노배
 지만_하였고즉위후후로상회네아비를양
 하야종하_야종하는신축해라란흥_어이
 이시니네아비더브러난만이슈작_하정상
 은이의승복_하야시니대도_하지만_하라공
 소_하되_상노의편지_는신의아비본디_용_하
 기로_는히물니치지_못_하고_되답_하였_소오
 며_종하의일은_그썩_조정간의과연_이말_이
 앓_기애_스월간에_드렸_느이다_못조_오시_디
 종해_란말_이형_정색_에났_거늘_즉위_후의_더

욱엇지 감히 입에 내여 슈작호리 오상노의
편지를 보면 이 피 놀납거든 오히려 상조속
에 두어 사니 엇지 역심이 아니라 오지만호
라 풍소호되다 맛당이 지만호오려니와 스
소로 범치아니 호였소오니 맛당이 디정으
투배지만호리이다 못조오시디게 초팔월
이십일이야 디 후에 궁위간막등은 말을 밧겼
히전파호고 궁위선지 흘녀드려보내니호
여곰 흘녀드려보내느냐는 곳너희 무리의
흐배라 비호를 노터브러 감히날의 지 못호

일을느니고 감히 전치 못할말을 전하야 소

면예 인현왕후손위하 실적일이니 슈권의비다 흥넬이이미다지

만하야시너네또흔지만하라공소하되이

의감히전하지 못할말을 전하엿소오니맛

당이지만하오리이다 못주소시더네그날

출방에 흥넬노더 브러슈작흔배이시니이

엇지신분의감히흔일이리오 흥넬이몬져

하엿느냐네몬져하엿느냐 흥넬이또닐은

디제벼슬에 근점흔일노버네몬져말하

엿다하니일노버지만하라공소하되 흥넬

이훈가지로입디훈사름인교로파연그말
을훈옛습더나훈블이역의납초훈옛소오
덕산이실노몬쳐알훈옛습누이다못조오
사디상노흥셔를디답훈교머무러두물네
비록지만훈나하히조식으로버아바를증
참훈지못훈려니와도당을모돈일파영합
파용인훈단말파공판을죽이고저훈며부
언을전파훈일파밋근점훈신다훈교슈
작훈일이무비난언범상이오감히닐은지
못훈일을직중의슈작훈교감히닐은지못

호말을 받쳐 전파하니 네 흥낼 노터 브러 죄
악이 이의 훈가 저라 흥낼의 게 훈은 목을 맛
당이 너힐 거시 너베틀을 듯고 저만 흥라 공
수 흥되 쏘 감히 날으 지 못 할 말을 님은 죄로
아오로 저만 흥니 이다 상간의 결안 흥고 모
릇 형은 꼭 태에 물고 흥니 낭시 게 수 흥되
상간 아이의 흥낼 노터 브러 훈가 저로 결안
흥야서 나가 하 흥낼 노터 브러 다르지야 날
거서 너 맛당이 훈가 저를 버지라 흥택
상이 좃쳐 샅법대로 덕물 흥다 ○ 너 형빈을

국문호야 못조오시디셔 명션의 상소논 곳
종샤의대계니이사 롬을 모해호는자논
이에 종샤의역적이라호물며 향니흔얼
의무리쥬야에엇보아져 군의우익을부디
철제코져호니이썸을당호야져 군의고위
함파국세의판탕함이도라보견대엇더호
노오직호궁관의보호함을힘납어즉위호
후에당일의틈을엇보던무리다제거호는
가온대이시니그외롭고위티호며고위
하고능연함이천일의셔터호지라오직이

훈낫신하롤이에의장ㅎ거늘너희드리반
드시장살ㅎ후에말파져ㅎ너그모음이장
춧엇지ㅎ파져ㅎ이노경빈이공소ㅎ되상
간이연인ㅎ사람으로배츨방에잇고신은
게방에잇는그로그새에췌조보앗슴고ㅎ
국영을췌ㅎ러브러니가아오니엇지셔로
해ㅎ모음이이시리잇가뭇조오시디약연
의초스에ㅎ되네말을홍상간의게듯고네
서로해ㅎ려모음이잇는줄을아랏노라ㅎ
니네엇지감히귀아리오네게방에이실새

에이미네음후후고사오나온줄을아랏고
령정조참에참네치아나후니이역신이오
또닌한의년계를참네코져아니후뜻이이
닌한을우단후눈모음을엇지가히귀이리
오공수후되신이그썬에식글이셔실노병
피이셔오지못후여심이니닌한의계수를
모피후일이아니로소이다못조오시뒤이
거시네아조비네아비게후편지니부조속
틸이후집안희셔엇지의논이드르며엇지
아지못후니이시리오이런후셔를상조에

공초와시니너도또호호음이又호호지라고
크고호라공소호되신의아즈비닌한으로
더브러년가호고로이편지를호였소오되
신은적소에이셔그편지를보지못호였습
고신의아비도병드러아지못호고오히려
두엇나이다 전디라경반은다만현호의
지친이오쌍간의절친호벗뿐아니라모든
죄인의초소에원인치안언덕업고제아비
쌍간비의궁홍호씩을경반이호가지로야
는뜻으로배장전의친문호기를가드리지

아니호야 념탐호는 사름이 시험호야 못는
씨에 온져 이리느너 신즉경빈의 죄는 제아
비이리고호였고 벗이 쓰호증인호여시너
곳호야 다시 무를써시아니너경빈을가형
일태호고절도령비호라강진현디도에령
비호니낭시계소호야나국득정호기를
청호대 불은호시다○나성은을 친국
호야상간의문칙이란말이문서에현로호
일과밋호도를테결호고기만호길을표통
하.신일노비발문호.양남공호후의행문일

태호야경상도응천현명비호다

신등이근안상간의역적되오미그정상

이장표특호고음비호니제본딤적변

의사릉으로성품이교샤호며템팅호고

것태로우미가롤잘호는지라호닐노버

명가조손이라호야그자등호를엇고셔

호야소우를밧고또호시절의논에부조스

고선비일흠을가탁호샤를 홍계능을 일음이라사

라붓족태제류간에가림을어더일세이

목을과리오고져호나그러나그용도의

복심과 조애 되야 버려져 궁으로 더 버려
맛셔련련히 식괴하고 괴격하야 맛춤버
극악대역에 도라간 후 그치미 그정상을
알기 어렵지 아닌 지라 저 궁은 이군이
어늘인 신이 되야 감히 대복 말노 버려 전
석에 셔협박하야 하여 음홍시를 붓드지
아니치 못하게 하교 또 홍시치는 이를 죽
이지 아니치 못하게 하촉이는 대개 홍시
의 성패로 버져 생명판 두를 삼는 고로 소
연히 이런 양을 틈발하야 그 범분하는 죄

를도라보지 못함이 오히려 소의 논에 너르
러는 저도 또 훈사림이라 엇지 스사로 그
패역 혼졸을 아지 못함, 리오 마는 창 초이
를 빙쟈 함, 야 버저 희 크 개 함, 표 처 함, 논 일
을 일 우 고 처 함 이 그 믿음 을 착 연 이 가 하
알 거 시 오 함, 을 며 제 왕 의 경 애 불 그 림 과
미 원 의 미 녀 를 나 온 일 노 배 문 조 의 형 용
함, 야 예 남 에 나 오 기 는 또 훈 무 슘 뜻 이
노 제 왕 의 개 비 함 기 는 진 실 노 신 조 의 감
회 들 으 지 못 함 배 어 니 와 닐 한 은 저 희 종

두호는 배로 디스스스로 미원의 계비기문
특별이 그일을 비려 인거호야 배 공동호
고 힘지 호략호는 계피라 슬프다 잊니 명
아 치 빛 빛 최 자는 바에 니 뒤도 망치 못호
되 그역적편이라 호샤야 직또 호용납호
야 현 현이 물 내치지 아니 신즉이에 감히
권우를 허장호야 권을 부르 고형체를
몰며 도당을 모도와 니 외로 레 벌호야 공
표호 계피와 기만호도 되 아 나 호는 배 업
서 배스스로 이상셔 호고 스스스로 이 드리

매니근러더욱도라보고써리느백업느
지라밋흥국영이귀척과환첩의다저웃
흥논사름으로써그잡은밭재의리랑흥
말슴이우희합흥야
진위특벌인달르
고므룻알외논바말이흥글又치속득
은작호은사등과몸
슬놈은일음이라을엄히흥고눈이들불
허아피저희패악흥말과흥흥색로더브
러일절이쌍반흥고또제게형의잇는집
이라이에스스로두려흥며스스로위심
흥다두려흥은
나라이그
상을통

축호심을 두림이 오의 심함은 궁판이 제
내아가물막을 가의 심함인지라 그러나
그배두려호노바노제홀노스스로알고
그배의 심함은 바노스름이 혹가히맛을
지라그런고로 그스스로아는 일은 숨기
고그가히맛을말은 드러내야헛거슬삼
미고업스일은모도와웅량초화호야순
종의압일흠과왕비왕숙문의선호호단
말노배중외에전파호야부디배국영을
제거홀바를도모호고기만。금년 금상

부조름이 을 통호, 아니 조판셔와 대제 호
음어라 을 통호, 아니 조판셔와 대제 호
홀청을 호, 고기만 어 후첨과 닐 한을 촉여
춘방을 얼루호, 야 골게 알 외미 이 시 닐 고
게 피 호, 참 버 능히 발 봐 지 못 호, 즉 스 스로
위 턱 호, 모 음 이 점 점 나 고 스 스로 보 전 호
도 모 룰 더, 옥 힘 배 호, 야 처 음 의 공 노 룰 장
해 호, 라 던 게 피 첨 점 버 우 호, 로 동 공 성
밋 처, 그 모 음 을 베 풀 고 썬 룰 쓰 미 드 티 어
너 르, 지 아 닐 배 업 스 너 이 그 스 세 의 반 드
시, 그 보 홀 배 라 슬 프 다 호, 호 호 호, 고 호, 독

홍도다대개상간이지히로버야비를삼
아상노의부도호편지를자히로터브러
서로왕복하야협소에김촌즉무릇그나
라홀해하는씩곳저희가전하는법이
그역적되물궁구하면우익을전제하고
번복을도모하기를기드려비로소나타
나미아나라그대복귀소지설을함으로
부터역심이이의드려나시니의논하는
재가히비변함을일즉이아니치못함을
인터○경반이복히로버야비를삼고선

히로아즈비를삼아시니 제게 무어슬척
망하리오너분족츠섬기논이논대척
을더알하논닌한의오우러러벗하논이
논요언을수장하논상간이며참예하논
벗자논궁판을전제하랴하논간사하논
와다못등신을크로다의논하논패약하
말이오참예치아닌벗자논쥬외하논라지
로즐겨피벽_{사피벽에라하논}이다나오오논
○형정하신큰효화라어에하논가치만어
셔도법에사치못하려든하논블며결문야

두어가 지이 심이라 성표에 줄으사디
계방에이 심으로 부터 이 믿음지 훈 줄을
아랫노라 하시니 낭주야 심이 진실노
불이 빛최시 논디 도망치 못호지라 호
신은 듯조오니 먼디 신하을 보매 반드시
두호는 바로 배호고 난적을 버히 매몬져
그당을 다스리다 호니 난한 파상관을 본
즉 경빈의 죄를 가히 알거시오난한 파상
관을 버히 고 경빈을 다스리지아니 흠이
엇지 춘추의 의리오

以松竹梅為三友

古語云竹君梅客松人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松竹梅為三友



